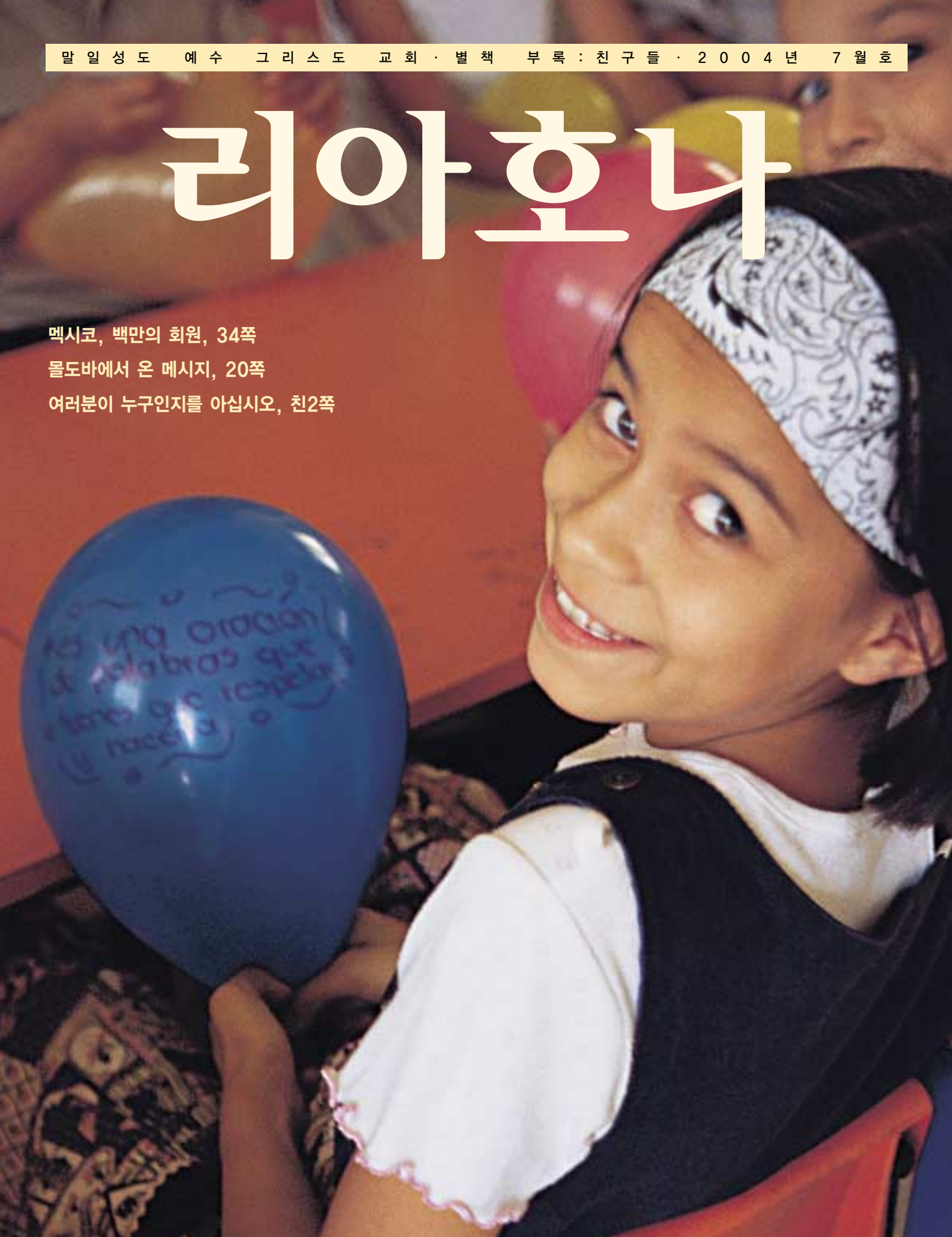


리아호나

멕시코, 백만의 회원, 34쪽

몰도바에서 온 메시지, 20쪽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친2쪽





앞표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기도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맨 왼쪽: 과달라하라의 호세 마로스 가족. 맨

오른쪽: 멕시코시티에 있는 역사적인 산페드로 마르티르 집회소. 위: 방문자 센터(앞)와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 오른쪽: 멕시코 메리다 센트로 스테이크의 신축 마데로 집회소.

“멕시코, 백만의 회원”, 34쪽 참조.

리아호나



표지
사진 돈 엘 설



친구들 표지
삽화: 스티브 크롭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친2쪽

성인

- 2 대관장단 메시지: 신앙의 기적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8 물문경 시대 개관: 도표 2-엘마서에서 물문서 및 모로나이서까지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낌
- 26 비행 청소년 집단의 영향력에서 자녀를 보호함
데니스 제이 노드펠트
- 30 물문경 원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림
벤자민 디 호요스 장로
- 34 멕시코, 백만의 회원
돈 엘 설
- 44 말일성도의 소리
우리 애가 물에 빠졌어요! *히로후미 나카츠키*
두 개의 똑같은 테이블 *손 쿠앙 레와 베스 엘리스 레*
그 여인은 내 기도의 응답이었다 *도리 라이트*
- 48 애독자 편지

청소년

- 15 포스터: 물결을 일으킴
- 16 모든 것 잘되리 *데이비드 이 헤이트 장로*
- 20 몰도바에서 온 메시지 *칼 핀치와 샌드라 핀치*
- 29 그들은 수가 많았다 *파울로 마틴 엔 마카리올라*
- 47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특별한 날 *샬러 이 월슨*
- 친6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에서: 노래 배우기
- 친8 포스터 기사: 가족을 축복하는 성전
- 친10 용기와 친절한 말 *패트리시아 리스 로퍼*
- 친14 친구 사귀기: 메드진 오터스 *티파니 이 루이스*





윌트와 코이더 게이스 씨공, 복제 금지

그림: 데이비드 코흐, 스위트워터 강을 건너감

1856년에 제이 디 티 맥앨리스터는 손수레 개척자들을 위해 즐거운 노래를 만들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언덕을 올라가세 저 계곡에 도착할 때까지 즐겁게 올라가세”(어린이 노래책, 136쪽)
이 곳에서 개척자들은 스위트워터 강을 건넜다.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고문: 이 레이 베이트먼, 몬터 데이 브러프, 데이 이 젠슨,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로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톨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콜라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샤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탈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앨빈 레빗, 샬리 데이 오데커, 애덤 시 울슨, 주디스 엘 필러, 비비안 폴슨, 돈 엘 설,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킴벌리 웹, 모니카 욱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가외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랜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렌 프랫,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데이 크리스텐슨,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데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텐슨

통 권: 제460호, 제41권, 제7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4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시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바꾸고 ☎ 02-2232-1441, 교한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파냐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카리비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어, 마살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4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urch Copyrights and Permissions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또는 전화 번호: 1-801-240-3959, 또는 이메일: **cor-copyright@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July 2004 No. 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림”, 30쪽:

우리에게는 육욕적이고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려는 욕구와

성향이 있다는 개념에 대해 토론한다.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우리 혼자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가족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고 구세주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속죄의 권세를

통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모사이아서 5:2 참조)

“비행 청소년 집단의 영향력에서 자녀를

보호함”, 26쪽과 “그들은 수가 많았다”,

29쪽: 부모의 입장에서 데니스 제이

노드펠트의 기사를 읽고 토론한다.

자녀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에 관해

이야기한다.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영원한

잠재력에 관해 간증을 얻도록 돕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언젠가는 그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간증한다.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 경우, 마르틴 엔 마카리올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젊은이는 올바른

친구들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것 잘되리”, 16쪽: 윌리엄

클레이튼과 그가 “모든 것 잘되리”라고

부른 찬송가에 관해 읽는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모든 일이

잘지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친2쪽: 재능과 성취는 자신에

대해 반드시 좋은 느낌이 들게

하지는 않지만, 친절함 행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한다고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지적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가족들에게

묻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친절함 행동에 관해 토론한다.

“용기와 친절함 말”, 친10쪽: 가족과 함께

이반 스티븐스의 이야기를 읽는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친절함 말이 이반의 생애에

가져다준 변화에 관해 이야기한다.

말일성도 찬송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반

스티븐스가 지은 찬송가들을 자녀들이

찾아보게 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선교 사업, 44
가르침, 1	선택 의지, 15, 29
가정 복음 교육, 7	성전, 34, 44, 친4, 친8
가정의 밤, 1, 친8	순종, 16
가족, 16, 26, 친4, 친8,	신성한 본질, 친2
친14	신앙, 2, 34
개종, 20	신체 장애, 2
개혁자, 16, 20, 47,	예수 그리스도, 2, 25, 30
친10	용기, 친10
경전 공부, 8	유순함, 30
교회사, 34	음악, 16, 친6, 친10
기도, 25, 44	전세계적인 교회, 20, 34,
기적, 2, 44	친14
끈기, 친6	준비, 친4
모범, 15	지도력, 47
물문경, 8, 30	초등학교, 친4
방문 교육, 25	친절, 44, 친2, 친10
봉사, 30, 44, 친2	폭력단, 26, 29
부모의 역할, 26	표준, 29
사랑, 25	



신앙의 기적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약 50년 전에 저는 덕망 있는 정치인이자 국제적으로 명망 높은 학자였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

(1871~1961)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반갑게 맞아들이신 다음 셔티식 덮개가 달린 책상에서 손으로 쓴 커다란 서류철을 꺼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그 분이 오래 전 법대 학생이셨을 때 작성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4복음서의 상관성에 관한 책을 출판하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제게 간략히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그의 기념비적 작품인 *복음서에서의 우리 주님(Our Lord of the Gospels)*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제 서재에는 그분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고 가족 표지로 된,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다룬 그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님의 기적들”이라는 장에 이르러 저는 잠시 읽기를 멈추었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큰

가죽 의자에 앉으신 채 제게 이 장의 기사 몇 개를 읽어 달라고 하시며, 들으시던 때가 바로 엇그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날은 제 생애 동안 결코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병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누가복음 5:12~13)

부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제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 곧 주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 매우 색다른 방법으로 주님 앞에 소개된 중풍병자에 관한 기사를 읽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제 마음은 고통 받는 자들을 구해 주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시며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와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림: 프랭크 이턴스, 사탕을 통해 예수님께 사랑의 편지,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피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누가복음 5:18~20)

경전의 다음 절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경멸적인 어조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언쟁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누가복음 5:22~25)

제가 이러한 기사들을 읽었을 때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더니,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나 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말을 몇 마디 나눈 뒤 사색에 잠겨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을 뒤로한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과의 이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은 고통 받는 자를 구해 주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시며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와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주님의 권능을 받는 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도 전함 웨스트 버지니아 호의 함장이었던 자신의 사위 머빈 에스 베니온 형제가 진주만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을 아주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날 그 곳에는 수풀에 걸린 양도 없었고 포탄의 파편을 막아낼 쇠벽이도 없었으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응답된 기도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병마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로 끔찍한 흉터가 남기도 하며, 한때 즐겁게 뛰놀던 어린아이가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기도 합니다. 소중한 자녀가 태어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때때로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지 중 하나가 없든지, 눈이 안 보인다는지, 혹은 다운 증후군과 같은 뇌 손상 등의 문제로 인해 당혹해 하고 슬픔에 가득 찬 채 희망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자신에 대한 책망과 부주의했던 행동에 대한 비난,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그녀의 가정을 지켜 주지 못했지?” “그가 그 파티에 가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단 말인가?” “수호 천사는 어디에 있었지?” 만약에, 왜, 어디에, 어떻게라고 되풀이되는 질문들이 잃어버린 아들, 온전한 육신, 부모들의 계획이나 젊은이의 꿈을 다시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사람을 회피하거나 깊은 절망에 묻히는 것은 결코 자신이 필요로 하는 화평과 확신과 도움을 안겨 주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에 대처해 나갔으며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가까이 있습니다.

용의 모범

아마 용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욥기 1:1)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면으로 보나 변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자신의 전부, 즉 부와 가족과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기 2:9)는 제언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큰 시련을 겪고 난 뒤 용이 선언한 신앙은 한 마디로 진리에 대한 간증이자 용기의 선포이며 신뢰의 천명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벅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닦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요기 19:23~27)

눈물로 얼룩진 절망의 낮과 슬픔의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에는 기쁨이”(시편 30:5)
온다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의 도래

수년 전 우리 시대의 참으로 훌륭한 여성인 사라 베이글리 셜웨이 자매는 브리검 영 대학교로부터 총장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 상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인식되지 않으나 영원토록 소중히 남을 일상의 극적인 일들은 가정이나 가족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현 생활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약속은 바로 이 단조롭지만 중요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

“[아빠가] 새와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 아빠가 장님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늘 아빠가 다른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손을 잡고 다니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통해 옵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상황들이 연극, 영화, 혹은 뉴스 방송의 공식에 잘 부합되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은 갈등과 격렬한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다음 세대의 역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경계를 강화합니다.”

사라는 1948년 당시 “친구이자 9년 동안 사귀” 에이치 스미스 셜웨이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연애 기간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보병 장교였던 스미스가 프랑스 파리로 진격하던 중 지뢰 폭발로 인해 실명하고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길어졌습니다. 스미스가 장기간 투병하는 동안 사라는 점자를 배워 개인적으로 그와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누군가 소리를 내어 자신의 편지를 읽어 준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미스 셜웨이 형제의 솔직 담백한 청혼에서 이 젊은 남녀의 특별한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와이오밍으로 귀향한 그는 사라에게 “당신이 차를 운전하고, 양말을 정리하고, 편지를 읽어 준다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학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며, 여덟 명의 성공한 자녀와 많은 손자녀를 갖게 되었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셜웨이 부부는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심각한 청각 장애를 갖게 되고, 이들 아이 하나는 선교 사업 도중 암 진단을 받고, 쌍둥이 손녀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등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제 가족과 저는 어느 해 여름 휴양지에서 셜웨이 부부의 전체 가족들과 만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가족 모두는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모든 가족들의 이름과 더불어 각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속한 가정을 나타내는 가계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셜웨이 형제님은 아주 당당하게 티셔츠에서 소중한 자녀들의 위치를 가리키고는 기쁨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자신의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눈으로는 그들을 본 적이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들을 알고 사랑했습니다.

저녁 오락 시간에 셜웨이 가족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자녀들에게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계신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어땠습니까?”라는 질문이 주어지자 그 중 한 딸이 웃으면서 “어렸을 때 저희는 이따금 저녁 식사 때 아빠가 후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아빠 모르게 그 분의 접시와 우리의 작은 접시를 바꿔치곤 했습니다. 아빠는 다 알고 계셨을텐데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자녀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제가 다섯 살 때쯤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동네 주변을 다니시던 일이 기억납니다. 아빠가 새와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 아빠가 장님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늘 아빠가 다른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손을 잡고 다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났지만, 사라와 스미스 섬웨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전쟁이 안겨 준 상처를 극복하고 인생의 역경과 슬픔을 딛고 용감하게 일어나 더 행복한 인생을 산 예입니다.

여류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이 노래와 같이 흘러갈 때
생이 마냥 즐겁기 쉬우나,
만사가 완전히 왜곡돼 나갈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네

마음의 시험은 곤경,
이는 늘 여러 해를 두고 오나니
세인의 칭찬을 들을 가치 있는 미소는
눈물 속에 핀 미소라네

유타 주 웨스트 밸리시티에 사는 멜리사 앵글의 감동적인 모범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멜리사의 이야기는 1992년 8월호 뉴 이라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태어날 때 저는 텃줄이 손가락을 싸고 있어서 [손가락을 잘라 내야 했기 때문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하나만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단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가 할 만한 일을 찾아내고자 하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제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린은 플루트를 불 때처럼 양손의 손가락이 없어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

“저는 지금까지 8년째 바이올린을 켜 오고 있습니다.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데, 교습비를 내려면 신문 배달 같은 일을 해야



한 후원자의 장학금으로 인해 어린 멜리사는 마음속으로 바랐던 집중 훈련을 위한 음악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은 제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바이올린] 교습은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받습니다. ...

“[제 생애에서] 제일 흥미 있었던 일은 미시간 주의 한 호수에서 열렸던 제일의 [청소년] 음악 캠프 가운데 하나인 인터로첸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8주간의 음악 훈련을 받기 위해 지원서를 냈었는데, 제가 받아들여졌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걱정은 돈이었습니다. 수천 달러의 비용을 마감 전까지 마련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연수비 납부 마감 약 일주일 전쯤 어느 분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분은 예능계로 나가려는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장학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제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릴 뿐입니다.”²

멜리사는 장학금을 받았을 때, 딸이 실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딸에게 열정과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려던 그녀의 어머니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세요, 그분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목하시는 주님께서 한 어린이의 소망을 성취시켜 주셨고 그 어린이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벨리사는 학사 학위를 받았고 크로아티아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소중한 약속

질병으로 묵묵히 고통을 겪어 온 모든 분들과,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매일, 매년 무거운 짐을 져 온 여러분들과, 숭고한 어머니와 헌신적인 아버지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어린이들, 특히 달릴 수 없고 뛰어 놀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언제나 주 지키며 너를 축복하여 주리.”³

물문경의 소중한 약속도 성취되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로 돌아가겠고 육체는 영혼으로 돌아가겠음이라. 육신의 사지와 관절이 원래의 모양대로 회복되고 머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요, 신체의 모든 부분이 본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리라. ...

“이후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빛을 발하리라.”(엘마서 40:23, 25)

시편에는 이런 확신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편 121:2~4)

말일성도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가사를 외우고 즐겨 불렀던 다음 찬송가에서 줄곧 위안을 받아 왔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잃은 것을 생각해 낙심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에 네가 놀라리 ...

세상 근심 걱정으로 시달려
십자가가 무겁게 생각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너의 모든 의심 사라지리라

세상 권위 네 앞길을 막으나

낙심말라 주는 능히 이기리
천사들이 네게 도움 위안을
너의 여행 끝날까지 주리라⁴

마음의 고뇌와 영혼의 슬픔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곳에 계십니까?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까?”⁵라고 묵묵히 여쭙 온 분들에게, 저는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이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박했던 지상 감옥의 사슬을 푸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주

1. “Worth While”, *The Best Loved Poems of the American People*에서, 46 sel. 47 Hazel Felleman(1936), 144쪽.
2. “Something You Really Love”, *New Era*, 48 Aug. 1992, 30~31쪽.
3. “사랑하는 자녀들아”, 찬송가, 40장.
4.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5. “어린이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6~7쪽.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1. 가족들에게 그들이나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고침을 받아 분노나 좌절 또는 과거의 어떤 상처에서 자유롭게 된 적이 있는지 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떻게 이런 종류의 병고침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비록 주님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영혼을 즉시 치유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관심과 축복을 전하시는가?
2. 가족에게 무능력하게 될 수도 있었던 신체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 낸 이 메시지에 나오는 어린 바이올린 연주자와 같은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역할에 대해 토의한다.
3.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 일부는 이생에서는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를 신체적, 정신적, 영적, 또는 정서적 짐들을 갖고 있다. 이런 개인과 그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 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서/장	모사이하서 28~29장	엘마서 1~44장			
저자/판에 기록한 사람	물몬	물몬			
판사 통치			2	5	7
연도 (일부는 대략 연도임)	주전 92	91	90	87	85

물몬경

시대 개관

니파이인

- 모사이하 왕은 자신의 아들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해오겠다고 허락했다. 그들은 약 14년간 지속된 선교 사업을 위해 떠났다. (모사이하서 28:1~9 참조)
- 사람들이 판사 치세에 따라 연수를 헤아리기 시작했다. 엘마와 모사이하 왕이 사망했다. (모사이하서 29:44~47; 엘마서 1:1 참조)
- 복음을 금전으로 사고 팔았던 거짓 제사 니허가 그의 죄로 인해 처형되었다. 내부의 다툼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번영했다. (엘마서 1장 참조)
- 애틀리싸이가 왕이 되기를 바랐으나 백성들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내전이 일어났으며 애틀리싸이와 그의 지지자들이 패했다. (엘마서 2:1~19 참조)
- 주님에게서 힘을 받은 니파이인들이 두 번의 큰 싸움에서 레이맨인들을 물리쳤다. (엘마서 2:27~3:27 참조)

레이맨인

- 모사이하의 아들들이 레이맨인 땅에서 헤어졌다. 암몬은 이스마엘 땅으로 가고 아론은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 (엘마서 17:6~19; 21:1~2 참조)
- 애틀리싸이인들과 연합한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엘마서 2:20~26 참조)

애틀리싸이-니파이-리하이 백성

- 애틀리싸이 백성들은 개종한 레이맨인들을 스스로를 애틀리싸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이라 불렀으며 니파이인들과 친숙해졌다. (엘마서 23장 참조)
- 암몬은 라모나이 왕의 종이 되었다. 왕이 기적적으로 개종했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았으며 교회가 세워졌다. (엘마서 17:20~19:36; 21:18~23 참조)
- 아론과 그의 형제들은 성공적으로 전파하지 못했으며 감옥에 갇혔다. (엘마서 21:1~14 참조)

- 암몬과 라모나이 왕이 온 레이맨인들을 다스리는 왕인 라모나이의 부친을 만났다.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감옥에서 구출되었다. (엘마서 20:21:14~17 참조)

- 아론이 라모나이의 부친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그가 기적적으로 개종하여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다. (엘마서 22~23:3 참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요 가르침

복음 원리에 대한 말씀들 (14쪽에 있는 도표 참조)

성경에 있는 여러 책들

1 3 5 7
2 4 6 8

9

엘마 이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엘마서 5장 참조)



10
82
▲

12
80
▲

15
77
▲

18
74
▲

● 니파이인들은 변명했으며,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엘마 이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대판사 직에서 물러났다.(엘마서 4:6~20 참조)

● 니파이인들은 많은 레이맨인들, 즉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들의 개종을 기뻐했으며 그들에게 여어손 땅을 주었다.(엘마서 27:20~24 참조)



● 개종한 조람인들은 여어손 땅에 있는 암몬 백성들과 합류했다.(엘마서 35:1~9 참조)

● 암몬아이하 사람들이 엘마 이세를 거부했으나 한 천사가 그에게 돌아가라고 명했다. 앰올레크가 그에게 거처를 제공했다.(엘마서 8장 참조)

● 반 그리스도인 코리호어가 그리스도, 속죄, 예언의 영을 조롱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병어리가 되었다가 죽었다.(엘마서 30장 참조)



● 엘마 이세가 배도한 조람인들을 다시 교화하기 위해 선교 활동을 이끌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개종했다.(엘마서 31~34장 참조)

● 엘마와 앰올레크는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으며, 평화와 의가 세워졌다.(엘마서 16:12~21 참조)

● 모로나이 대장이 지휘하는 니파이인 군대가 제라렘나의 군대를 물리쳤다.(엘마서 43~44장 참조)



● 엘마 이세와 앰올레크가 투옥 당했으나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엘마서 14장 참조)

● 니파이인 대장인 조람이 끔찍한 전투에서 레이맨인을 물리쳤다. 아빈아다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엘마서 16:4~11; 25:3~12 참조)

●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들은 니파이인들과 더불어 살기 시작했고 암몬 백성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엘마서 27:25~30 참조)



●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이 다시는 인간의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성약을 맺으면서 그들의 검을 묻었다. (엘마서 24:1~19 참조)

● 천 다섯 명의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이 저항하지 않은 채 죽임을 당했다. 이런 용기에 감동을 받아 더 많은 레이맨인들이 개종했으며 전쟁이 끝났다.(엘마서 24:21~30; 25:1 참조)

● 위협으로 인해 암몬과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들은 니파이인들에게 보호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엘마서 27:1~15 참조)

● 일부 레이맨인들이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 왔다.(엘마서 24:20 참조)



●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양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엘마서 28장 참조)

●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암몬아이하 성을 멸망시켰다. (엘마서 16:1~3; 25:2 참조)

● 레이맨인들이 계속해서 개종했다. 암몬은 레이맨인들 가운데 거둔 선교 사업의 성공에 대해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엘마서 25:13~26:37 참조)

● 사악한 조람인들과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에 대한 전쟁에서 연합했다.(엘마서 35:10~13 참조)

● 엘마 이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관해 예언했다. (엘마서 7장 참조)



● 엘마 이세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가르쳤다.(엘마서 12~13장 참조)



● 엘마 이세는 신앙을 얻는 방법을 가르쳤다.(엘마서 32~33장 참조)



● 앰올레크는 최대 최후의 희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엘마서 34장 참조)



● 엘마 이세는 그의 이들에게 자신의 개종에 관해 말했다. (엘마서 36~42장 참조)



11 13 15 17 19 21 23 25
10 12 14 16 18 20 22 24

26 27

28 29

30 31

33 35 37 39 41 43 45 47
32 34 36 38 40 42 44 46 48

서/장	엘마서 45~63장							
저자	물론							
판사 통치	19	20	26	27	28	29		
연도	주전 73	72	66	65	64	63		
	▲	▲	▲	▲	▲	▲		

니파이인

- 아멜리카이아는 왕이 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모로나이 장군은 자유의 깃발을 들어 올렸으며, 아멜리카이아는 레이맨들에게로 도망갔다.(엘마서 45:20~46:41 참조)

- 엘마 이세는 영에 이끌려 갔다.(엘마서 45:1~19 참조)

- 평화의 시기 동안 모로나이 장군과 힐라맨은 전쟁에 대비해 사람들을 준비시켰다.(엘마서 48:7~25 참조)

- 니파이인의 반대자 모리멘톤 때문에 생긴 분쟁으로 인해 내전이 일어났다. 모로나이 장군과 티안쿰은 무력으로 소요를 진압했다. 페이호랜이 대판사가 되었다.(엘마서 50:25~40 참조)

- 왕당파는 왕을 세우기 위해 법률의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불화를 일으켰다. 모로나이 대장은 신속하게 모반을 진압했다.(엘마서 51:1~21 참조)

- 티안쿰은 아멜리카이아의 복진을 막았으며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를 죽였다.(엘마서 51:28~37 참조)



- 니파이인들이 물레크 성을 탈환했다.(엘마서 52:4~40 참조)

- 서부 지역의 엔티파라 성을 탈환했다. 기적적으로 2,000명의 젊은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엘마서 56:11~57:5 참조)

- 힐라맨의 군대가 서부 지역의 쿠메나이 성을 함락했다. 레이맨인 군대가 성의 탈환을 시도했으나 대전투에서 패했다. 또다시 힐라맨의 용감한 젊은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엘마서 57:6~36 참조)

- 모로나이 대장이 포로 교환을 거절했다. 그의 군대는 동부 지역의 기드 성을 탈환했으며 피흘림 없이 니파이인 포로들을 석방시켰다.(엘마서 55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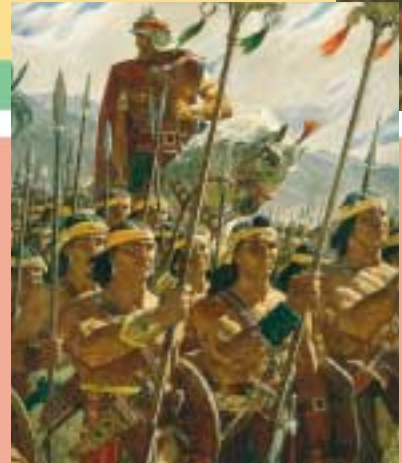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

- 힐라맨은 서부 경계 지역을 지키기 위해 2,000명의 젊은 용사들을 이끌었다.(엘마서 53:10~23; 56:2~10 참조)

레이맨인

- 아멜리카이아가 니파이인들을 다시 공격하여 동부 해변의 많은 성들을 함락시켰다.(엘마서 51:22~27 참조)



- 아멜리카이아의 형제인 엠모론이 왕이 되었다. 레이맨인들은 물레크 성으로 물러갔다.(엘마서 52:2~3 참조)

- 엠모론이 동부 해변을 따라 공격하여 많은 성들을 함락시켰다.(엘마서 53:8~9; 56:12~15 참조)

- 엠모론이 포로 교환을 요청하는 편지를 모로나이 대장에게 보냈다.(엘마서 54장 참조)

- 아멜리카이아는 레이맨인 왕을 살해한 후 왕좌를 차지했으며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 백성들을 사주했다.(엘마서 47:1~48:6 참조)

- 레이맨인 대군이 니파이인들을 공격했으나 노아 성에서의 격렬한 전투에서 패했다.(엘마서 49장 참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요 가르침

복음 원리에 대한 말씀들 (14쪽에 있는 도표 참조)

49 50

51

성경에 있는 여러 책들

힐라맨서 1~5장
물문

30
62
▲

39
53
▲

42
50
▲

62
30
▲

● 모로나이 대장은 페이호랜에게 분노에 찬 편지를 보내어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페이호랜은 제이라헤물라에서 일어난 왕당파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답신을 보냈다.(엘마서 53:8~9; 60~61 참조)

● 모로나이 대장은 힐라맨의 군대에 지원군을 보냈고, 왕당파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다른 군사를 모아 페이호랜과 연합했다.(엘마서 62:1~12 참조)

● 모로나이 대장과 페이호랜은 동부 지역의 니파이하 성을 탈환했다. 레이맨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다.(엘마서 62:14~42 참조)



● 모로나이 대장은 은퇴했고 힐라맨은 돌아가서 복음을 가르쳤다. 백성들은 변영했으며 의로웠다.(엘마서 62:43~52 참조)



● 많은 니파이인들이 북쪽 땅을 향해 떠났다. 헤이고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쪽 바다로 향했다. 힐라맨의 아들, 힐라맨이 성스러운 기록을 맡았다.(엘마서 63:1~13 참조)

● 페이호랜의 아들, 페이호랜이 대판사로 선출되었으나 키시쿠멘에 의해 살해당했다.(힐라맨서 1:1~13 참조)



● 백성들은 변영했으며 평화롭게 살았다. 교회가 커지고 강화되었다.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가 대판사가 되었다.(힐라맨서 3장 참조)

● 다툼이 교회를 약화시켰다. 모반을 일으킨 니파이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레이맨인들을 선동했다.(힐라맨서 4:1~4 참조)

모로나이가 잃어버린 땅의 반을 되찾았다. 그러나 영적으로 약해진 니파이인들은 간악함으로 인해 종종 싸움에서 패했다.(힐라맨서 4:9~26 참조)

니파이가 대판사직에서 사임했다. 동생 리하이와 함께 그는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에게 화해를 전했다.(힐라맨서 5:1~19 참조)

● 레이맨인들이 동부 지역의 니파이하 성을 정복했다.(엘마서 59장 참조)

●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니파이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으나 모로나이 장군의 아들 모로나이하에게 패했다.(엘마서 63:14~17 참조)

개다이엔톤 도적단

● 키시쿠멘은 힐라맨을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개다이엔톤 비밀 결사대는 광야로 도망했다.(힐라맨서 2:3~14 참조)



● 니파이인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코리엔툼오어는 레이맨인들을 이끌고 니파이인과의 전투에서 제이라헤물라 성을 함락시켰다. 모로나이하는 그를 포위하여 물리쳤다.(힐라맨서 1:14~34 참조)

● 레이맨인들과 니파이인의 모반자들이 많은 니파이 땅을 점령했다.(힐라맨서 4:5~8 참조)



서/장	힐라맨서 5~16장		니파이삼서 1~30장			
저자	몰론		몰론			
판사 통치	63	69	86	91		
연도	주전 29	23	6	A.D. 1	30	34
	▲	▲	▲	▲	▲	▲

니파이인

개다이엔톤 도적단의 위협이 커졌기 때문에 니파이는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판사의 실해를 알리고 범인을 밝혀 냈다.(힐라맨서 7~9장 참조)

주님은 니파이에게 인봉의 권세를 주셨다. 니파이는 주님께 기근을 보내 달라고 간구했다. 백성들은 회개했으며 잠시 동안 평화가 찾아 왔다.(힐라맨서 10:1~11:23 참조)

니파이인들이 다시 교만해지고 간악해졌다.(힐라맨서 11:36~38 참조)



레이맨인 사무엘이 니파이인들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탄생 및 죽음의 표적에 관해 예언했다.(힐라맨서 13~16장 참조)

니파이의 아들, 니파이가 성스러운 기록을 맡았다. 그리스도 탄생의 표적이 주어졌으며, 사람들은 이 사건의 시점으로부터 시간을 헤아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니파이삼서 1:1~26; 2:5~8 참조)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 탄생의 표적을 잊거나 부인하게 했다.(니파이삼서 2:1~4 참조)

니파이인들과 개종한 레이맨인들이 한 백성이 되었으며 자신들을 니파이인이라 불렀다.(니파이삼서 2:14~19 참조)

통치자 레이코니우스와 총사령관 기드기드도나이가 성공적으로 군사 작전을 이끌며 도적단을 격퇴했다.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니파이삼서 3~5장 참조)

타락한 지도자들이 은밀히 예언자들을 살해하고 정부를 전복시켰다. 백성들이 여러 지파로 분열되어 정부가 무너졌다. 니파이는 담대하게 회개를 전파했으나 개종한 자가 거의 없었다.(니파이삼서 6~7장 참조)

그리스도 사상의 표적이 주어졌다. 많은 성과 사람들이 멸망되었다.(니파이삼서 8장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권능을 주시고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신 다음 하늘로 올라가셨다.(니파이삼서 9~18장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의 제자들이 성역을 베풀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니파이삼서 19~26장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며, 그들에게 그분의 교회와 복음에 관해 가르치셨다. 그분은 세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들이 지상에 남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그 다음에 그들은 변형되었다.(니파이삼서 27~28장 참조)

개다이엔톤 도적단

개다이엔톤 도적단은 니파이인들을 총동하여 타락과 살인으로 이끌었다. 레이맨인들은 도적들 돕기를 거부했다.(힐라맨서 6:15~41 참조)

새로운 한 무리의 개다이엔톤 도적단이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에게 대파멸을 가져왔다.(힐라맨서 11:24~27 참조)

개다이엔톤 도적단의 수가 크게 많아지고 강해져서 온 백성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했다.(니파이삼서 2:11~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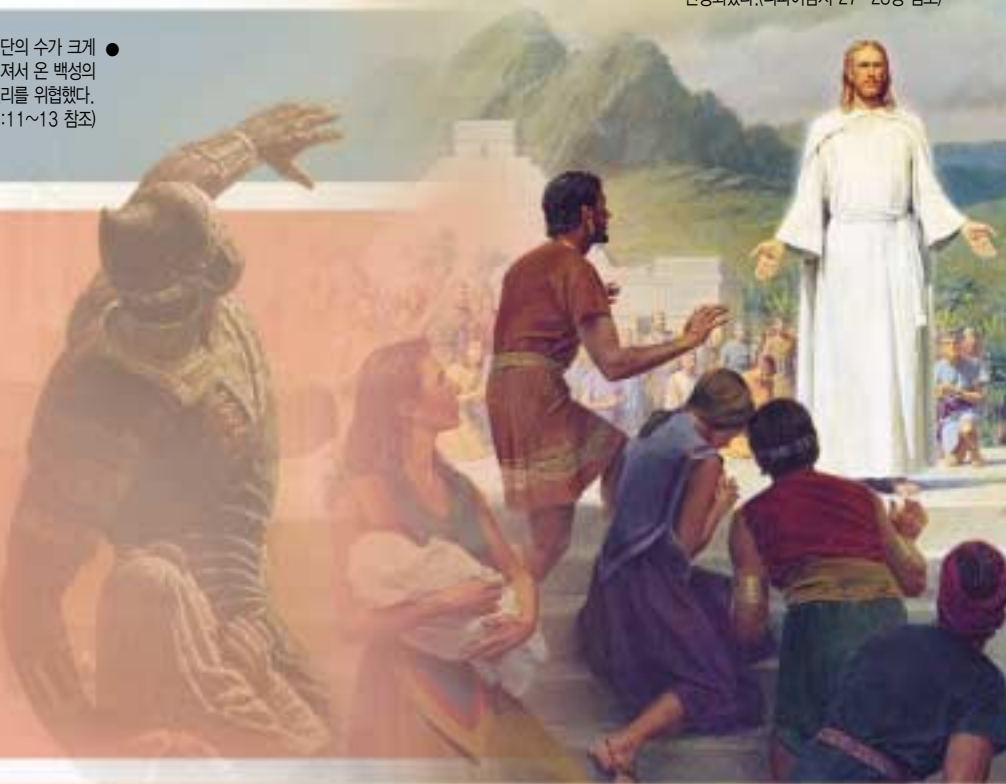
레이맨인

니파이와 리하이는 레이맨인의 갑옷에 간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다. 한 음성이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다.(힐라맨서 5:20~52 참조)



레이맨인들의 신앙은 확고하고 단호했다.(힐라맨서 13:1; 15:4~10 참조)

레이맨인 선교사들이 니파이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두 민족은 평화와 번영, 그리고 영적인 굳건함을 누렸다.(힐라맨서 6:1~14 참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요 가르침

레이맨인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의 표적에 관해 예언했다.(힐라맨서 14장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니파이삼서 11~18장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설명하셨다.(니파이삼서 19~26장 참조)



복음 원리에 대한 말씀들 (14쪽에 있는 도표 참조)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성경에 있는 여러 책들

신약전서의 복음서 및 사한

35

231

321

400

1823-1830

한 백성

●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이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로 개종했다. 사람들은 서로서로 모든 것을 공유했으며 평화와 기쁨 속에서 생활하였고 그들 가운데 간악함이 없었다.(니파이사서 1:1~23 참조)

● 큰 교만과 간악함이 온 땅에 퍼졌다. 많은 거짓 교회가 일어나 성도들을 박해했다. (니파이사서 1:24~34 참조)

●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졌다. 니파이인들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었으며, 레이맨인들은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이었다.(니파이사서 1:35~41 참조)



니파이인

● 니파이(구세주의 제자 중 한 명의 증손자 엠마론이 성스러운 기록을 감추었다.(니파이사서 1:47~49 참조)

● 엠마론이 성스러운 기록에 관해 몰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몰몬서 1장 참조)

● 군대의 총사령관이며 영적 지도자인 몰몬은 백성을 이끌고 레이맨인들과 싸워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몰몬서 2:1~3:16 참조)

● 몰몬이 24세에 성스러운 기록을 맡았다.(몰몬서 1:2~4; 2:17 참조)

● 몰몬이 약 1,000년에 걸친 자신의 백성의 역사를 요약하여 편집했다.(몰몬의 말씀 1:3~5, 9~11; 몰몬서 3:17~4:23 참조)

● 몰몬이 마지막 싸움에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었다. 몰몬은 성스러운 기록을 아들 모로나이에게 넘겨주고 죽임을 당했다. 니파이 백성이 멸망되었다.(몰몬서 5~8: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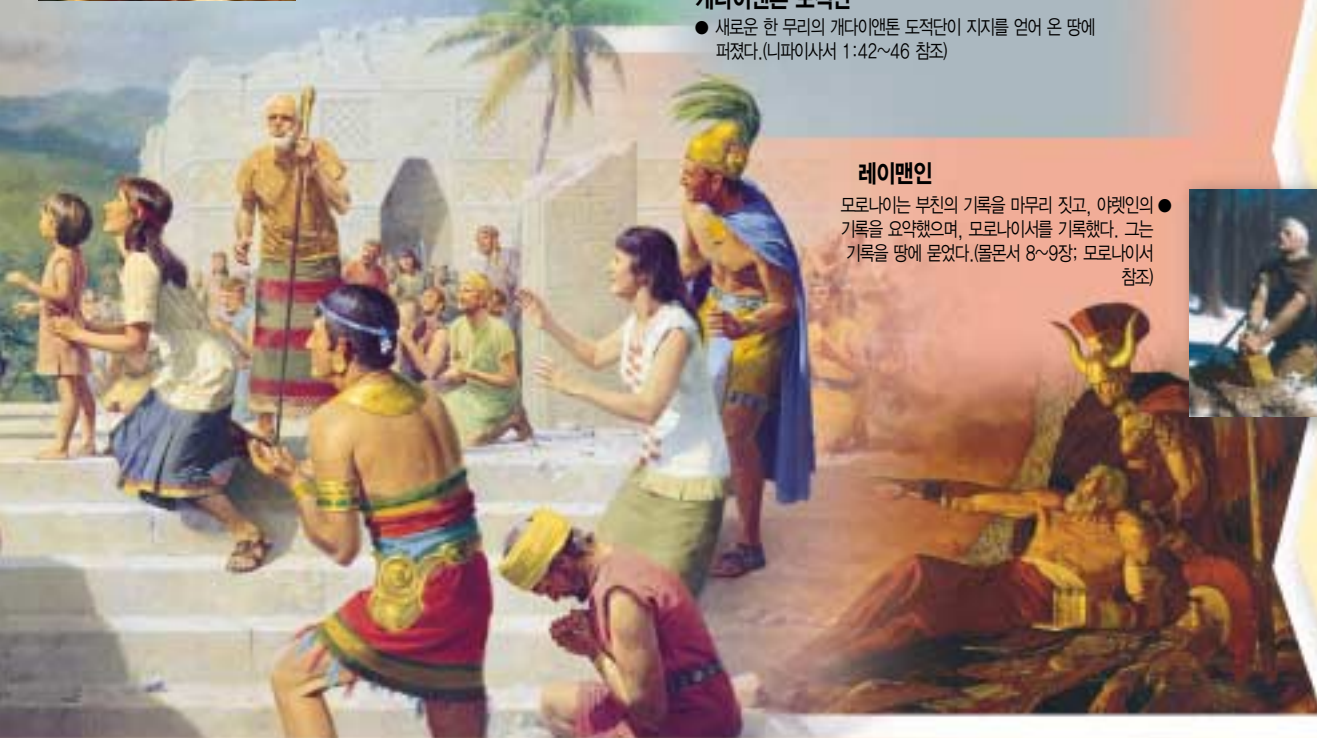
● 모로나이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성스러운 기록을 주었다. 그 기록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번역되어 몰몬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출판되었다.(몰몬경 표제지; 요셉스미스 2서 참조)

개다이엔톤 도적단

● 새로운 한 무리의 개다이엔톤 도적단이 지지를 얻어 온 땅에 퍼졌다.(니파이사서 1:42~46 참조)

레이맨인

● 모로나이는 부친의 기록을 마무리 짓고, 아랫인의 기록을 요약했으며, 모로나이서를 기록했다. 그는 기록을 땅에 묻었다.(몰몬서 8~9장; 모로나이서 참조)



●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에 따라 교회를 세울 것을 명하셨다.(니파이사서 27장 참조)

● 몰몬은 모든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다고 기록했다.(모로나이서 8장 참조)

● 모로나이는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고 모든 사람에게 권고했다. (모로나이서 10장 참조)

몰몬경 시대 개관

복음 원리에 관한 성구들

참조 성구	원리	참조 성구	원리
1 엘머서 1:25~30	우리는 큰 박해가 있을 때에도 계속 평화를 누릴 수 있다.	37 엘머서 32:27~43	간중은 신앙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생긴다.
2 엘머서 17:2~3	경전을 상고하고 스스로 많은 금식과 기도를 할 때 성신의 축복이 우리 생활에 찾아 온다.	38 엘머서 33	경전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구세주를 믿는 것이 간증을 발전시키는 길이다.
3 엘머서 17:11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것은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우리를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해 준다.	39 엘머서 34:27~29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을 방문하고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야 한다.
4 엘머서 17:25; 18:17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40 엘머서 34:32~35	이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5 엘머서 18:9~10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훌륭하게 봉사해야 한다.	41 엘머서 36:3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것이다.
6 엘머서 18:16, 34	우리는 영으로 충만할 때만 권세로 가르칠 수 있다.	42 엘머서 36:17~19	우리는 회개와 구세주의 자비로 인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죄의 기억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된다.
7 엘머서 18:40~41; 19:6	믿은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	43 엘머서 37:6	간단하고 적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룬다.
8 엘머서 19:36	주님의 손길은 그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	44 엘머서 37:37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주의 의논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9 엘머서 3:19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에만 정죄하신다.	45 엘머서 38:12	걱정을 다스릴 때 우리는 시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10 엘머서 4:19; 31:5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의 교만, 교활함, 디통을 없앨 수 있다.	46 엘머서 39:13	그릇된 본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 사람들은 돌아와서 잘못과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
11 엘머서 5:7~9	우리의 영혼은 영속하는 말씀의 빛으로 교화되고 지옥의 사슬에서 풀려 나올 수 있다.	47 엘머서 40:6, 11~14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영의 세계, 즉 악인은 낙원으로 악인은 어둠의 곳으로 간다.
12 엘머서 5:11~14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몸이 지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듭 날 수 있게 된다.	48 엘머서 41:10	간악함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
13 엘머서 5:21~25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열락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 받을 수 있다.	49 엘머서 45~47; 46:12	국가와 가족과 교회를 지키고, 권리와 자유를 보존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은 대의 명분을 위한 전쟁은 타당하다.
14 엘머서 5:33~60	선한 목자의 음성을 귀기울여 들을 때에만 우리는 그 목자의 양이 된다.	50 엘머서 48:14~16	우리는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명에 따라 자신을 지키는 것은 정당하다.
15 엘머서 5:61~62	예언자들이 자주 그랬듯이 엘머는 교회 회원들에게는 명령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권유로 말했다.	51 엘머서 53:8~9	내적으로 다툼과 악행이 있을 때 적의 지배를 당할 수 있다.
16 엘머서 7:7~13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역, 속죄의 희생 및 부활이다.	52 엘머서 60:23	먼저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한 후, 바깥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17 엘머서 7:14~16	구세주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에 이르는 참례를 받아 우리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나며, 쉽게 우리를 괴롭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53 할라맨서 4:24~26	죄를 지으면 우리는 영을 잃고 약해진다.
18 엘머서 7:23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온유하며, 쉽게 권고대로 행하며, 인내심을 가지며, 오래 참으며, 절제하며, 부지런하고, 기도하며, 감사한다.	54 할라맨서 5:12	우리의 반석인 신약구약에 의지할 때, 어떤 권세도 우리를 비참함과 끝없는 저주의 구렁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19 엘머서 9:23; 24:30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려 범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상태에 있다.	55 할라맨서 15:3	주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연단시키신다.
20 엘머서 11:37~46; 12:19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그리고 그분의 심판에 관해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심지어 놀라게까지 할 수 있다.	56 니파이서서 7:15~22	표적이거나 가짜는 신앙이나 개종의 기초가 되기에 족하지 않다.
21 엘머서 12:9~11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즉 그분의 말씀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열의와 부지런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다.	57 니파이서서 11:29	다투는 정신은 악마에게서 나온 것이다.
22 엘머서 12:30~32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먼저 밝혀 주시고 그런 다음 그분의 계명을 주셨다.	58 니파이서서 12:1~2	겸손과 신앙을 가지고 로로 참례를 받아 성신의 권세로 깨끗함을 받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다
23 엘머서 13:1~13	하나님은 그분의 기룩한 신권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회개, 의로움에 의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59 니파이서서 12:23~24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
24 엘머서 14:11; 60:13	주님은 때때로 간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멸망시키도록 내버려두신다. 그러나 그분의 심판의 행사는 공정하다.	60 니파이서서 13:14~15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25 엘머서 15:3~11	우리는 죄를 인식할 때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느낄 수도 있으며, 신앙과 회개로 인도될 수 있다.	61 니파이서서 13:19~21	영원히 있게 될 하늘의 재물이 마음을 두고 그러한 것을 추구한다.
26 엘머서 24:27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	62 니파이서서 13:33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한다.
27 엘머서 26:11~12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큰 의를 이룰 수 있다.	63 니파이서서 14:24~27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28 엘머서 27:18	진실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온다.	64 니파이서서 18:32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야 한다.
29 엘머서 28:13~14	좌는 사람들 사이에 큰 불공평을 야기한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공평을 개선하는 일을 돕는다.	65 니파이서서 26:6~10	우리가 몰몬경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다 위대한 일들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30 엘머서 29:4~5	하나님은 선에 이르든지 악에 이르든지 우리의 원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66 니파이서서 27:10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분의 복을 위해 세워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업을 그 안에서 보여주시길 것이다.
31 엘머서 29:6~9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경배주시 일을 행하고자 소망해야 한다.	67 니파이서서 1:15~16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 때, 불화나 악이 없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32 엘머서 30:40~44	만물은 하나님께 기쁨을 상징한다.	68 모로나이서서 6:4	교회 회원들은 계속해서 올바른 길에 있도록 해 주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33 엘머서 30:60	악마는 마지막 날 그의 추종자들을 돌지 않을 것이다.	69 모로나이서서 7:6~10	마지못해 또는 참마음이 없이 헌물을 바치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
34 엘머서 31:38	주님은 의인들에게 힘을 주시며 그들이 고통을 견디게 하신다.	70 모로나이서서 7:16~17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무엇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든지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35 엘머서 32:13~16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겸손해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있다.	71 모로나이서서 7:40~48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구원에 필수적이다.
36 엘머서 32:21	신앙은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된 것에 대한 소망이다.	72 모로나이서서 8:8~22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속되며 참례 받을 필요가 없다.
		73 모로나이서서 10:3~5	우리가 몰몬경을 읽고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상고하고 그것을 믿는 신앙을 간구할 때, 성신은 그 책의 참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74 모로나이서서 10:32~33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건강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은총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에 충분하다.

물결을 일으키는

작은 물방울

자신이 큰 연못에 떨어진 작은 조약돌처럼 느껴진다 해도, 여러분의 선택은 영원한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선택하여 강한 인상을 남기십시오.
(니파이삼서 12:14~16 참조)



모든 것 잘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제가 처음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라는 찬송가를 알게 된 기회는, 소년기를 보낸 남부 아이다호 주의 어느 작은 석조 태버나클 안에서였습니다. 1880년 말엽에 지역 회원들이 화산암으로 만든 그 작은 태버나클 안에는 지금 이 태버나클 안에 있는 것과 흡사한 연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뒤쪽에는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과 같은, 하지만 보다 작은 규모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태버나클 안에서 윌리엄 클레이튼이 작사한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부를 때마다, 저는 홀을 가득 채우는 음악의 영광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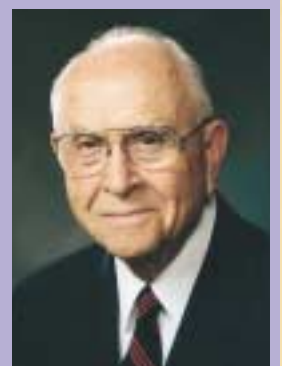
윌리엄은 교사였던 부친으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필체가 뛰어났고, 계산에도 뛰어났으며,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 교회가 막 태동할 무렵, 그는 히버 시 김볼 장로가 이끄는 선교사 그룹의 가르침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명필이라는 것을 간파한 그들은 기꺼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23세의 총명한 젊은이였습니다. 곧 그는 영국의 자그마한 교회 조직에서 비서, 서기, 때로는 장부 계원 등으로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나부로 가기를 원했으며, 마침내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나부에서 그는 교회의 예언자와 여러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지도자들은 다시금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름을 주고 그를 활용했는데, 이는 그의 필체가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철자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같은 능력을 가진 젊은이를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 잘되리-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예언자의 순교 이후에, 윌리엄 클레이튼은 브리감 영 대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2월에 시작되었고, 때는 바야흐로 4월이었습니다. 말과 소떼들이 이끄는 마차와 우마차를 타고, 아이오와의 진창이 된 평원을 비를 맞으며 힘겹게 건넌 그들은 낙담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고, 아이들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더디게



성도들은 낙담했었고, 여행은 험난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클레이튼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라고 적었습니다.

전진해 나갔습니다. 하루에 겨우 몇 마일밖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클레이튼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라고 적었습니다. 힘겨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낙담해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혹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그는 계속 전진해 나가면 상황이 나아지리라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뒤이어 다음과 같은 훌륭한 소절을 적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준비한 (서부 원방의) 그 땅에 가리니 우리가 비록 수렁에 빠져 낙담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은 변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는 신앙을 갖는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가사에 희망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준비한 그 땅에 가리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리.” 참으로 사람을 감동케 하는 영감이 찬 가사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행복한 날 여행이 끝나는 그 날이 오리니”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는다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날입니다!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 아낀다면 어찌 성도들과 같이 이 기쁜 날 바랄소냐” 제대로 마차 바퀴가 버터 준다면, 기도를 통해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낸다면, 우리가 그 곳에 이르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안식처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면” 우리가 그 곳에 이른다면, 우리가 그 곳에 이르러 시온을 만들

용기가 있다면,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되리-만일 우리가 의롭게 생활한다면

윌리엄 클레이튼은 일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래 ‘모든 것 잘되리’를 작곡했다.”(윌리엄 클레이튼의 일지[1922], 19쪽) 저는 이 노래의 원제인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되리!”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으로 산다면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되리!”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그림도, 절차도, 자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 이를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보존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되리!”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교회의 “공식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제 조부이신, 호튼 데이비드 헤이트는 15세에 브리검 영 대대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계곡에 도착한 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대평원을 걸어 횡단했습니다. “모든 발자취에 신앙이”를 부를 때면, 저는 실제로 그같이 사셨던 조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열다섯 살 된 아이는 마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나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은 필요한 일을 행하는 역할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후에 조부님과 결혼한 루이사 레빗은 그녀의 가족이 계곡에 도착했을 때 막 열한 살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녀도 대평원을 걸어서 횡단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유산을 상기하며,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언자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장래는 대단히 밝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며,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 잘되리-만일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가진다면

제가 열두 살 가량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전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집 부근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운동 기구라고는 오래된 야구 미트(역자 주: 야구 방망이 속의 심뽕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뉴욕 양키즈 팀의 선수로 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양키즈는 뛰어난 팀이었습니다. 저는 월드 시리즈에서 양키즈의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3:3으로 팽팽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석에 누가 들어 선지





1994년에 헤이트 장로님 부부는 3명의 자녀와 18명의 손자녀와 39명의 증손자녀를 두고 계셨다. 현재 78명의 증손자녀들이 있다.

아십니까? 타석에 서서 자세를 취하자, 투수가 제가 원하는 코스로 공을 던집니다. 양키 스타디움을 훌쩍 넘기는 홈런을 치며, 저는 월드 시리즈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전 바로 그것이 제 인생의 위대한 순간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저는 로스엔젤레스 성전의 어느 작은 인봉실에서 저의 아내 루비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신혼인 아들 내외도 함께하는 가운데, 저희 사랑스런 딸이 함께 인봉될 젊은이의 손을 꼭 잡고 제단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을 둘러보면서, 바로 그 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방 안에는 제게 소중한 모든 것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제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그 곳에

있었습니다. 제 영원한 애인이며 동반자인 아내가 그 곳에 있었으며, 세 자녀들이 그들의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그 곳에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데이비드, 네가 젊을 때 모든 것은 잘못되었어. 너는 어떤 세상적인 일이 인생에서 위대한 사건이 되리라 생각했었지.” 하지만 저는 그 곳에서 위대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위대한 사건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그 하얀 인봉실에서 제 가족과 함께하는 가운데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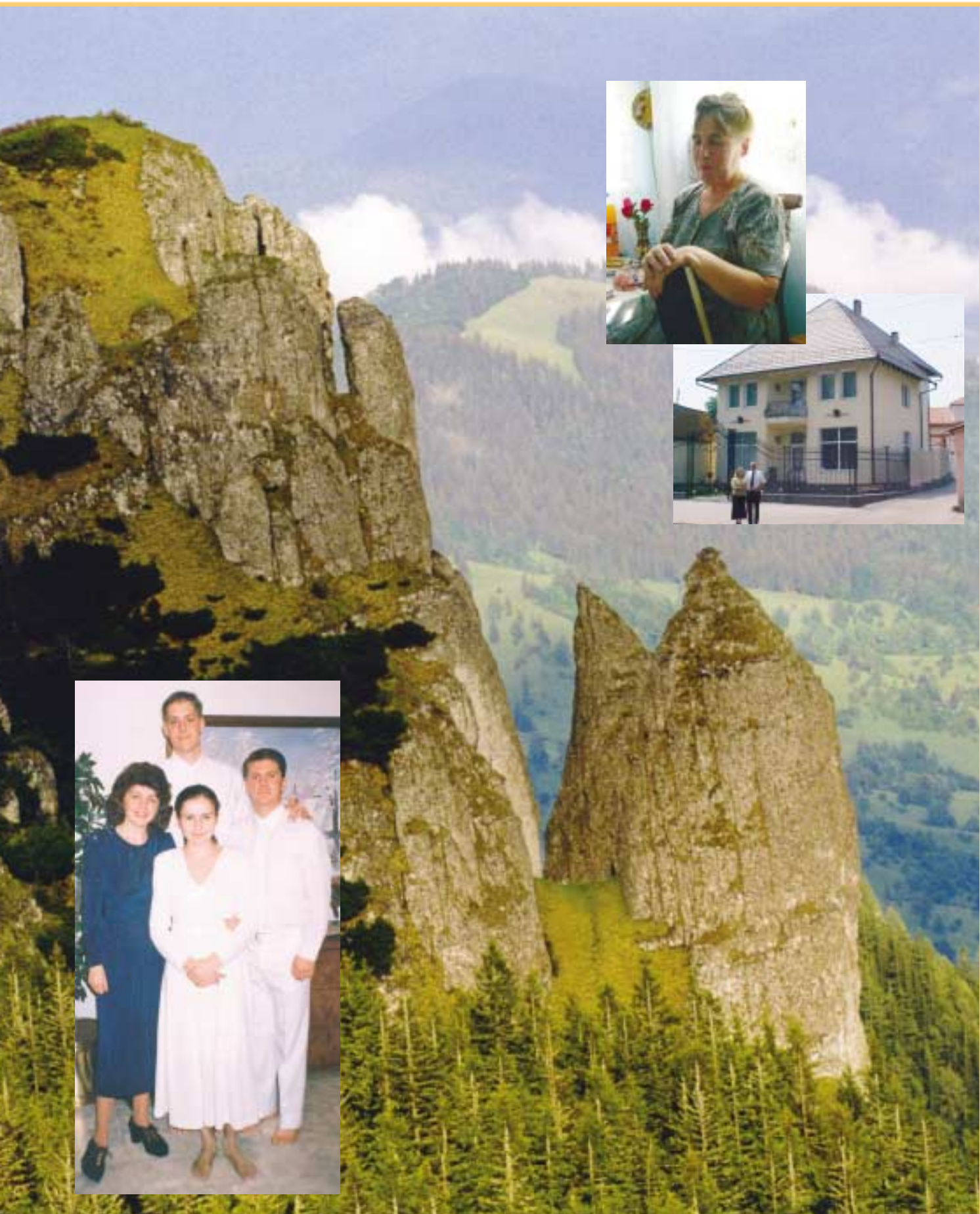
여러분께 저의 사랑을 전하며 이 사업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감동적인 간증에 진실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름의 주인공이신 주님께 진실하면서, 이 사업이 널리 전파되도록 모범을 보이며, 복음을 전파하고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

1997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저는 그 방을 둘러보면서, 바로 그 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방 안에는 제게 소중한 모든 것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레인, 연스, 홀킨스, 헐리핀니, 로스, 엔젤루스, 성진, 스티브, 트레카일, 가족의 행복을 믿어 가족 사단을 개척함





채소가 재배된다. 언덕은 산이라고 하기엔 낮지만, 셋노란 해바라기들이 나무와 풀 사이에 군데 군데 섞여 있는 초원으로 뒤덮여 있다.

몰도바에서 가장 큰 지부는 치시나우에 있다. 이온 비란 지부장은 최초의 몰도바인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십대인 그의 딸, 나탈리는 1997년 11월에

언덕에서 수도 치시나우를 내려다보는 줄리아나 무스테아타와 이리나 비지티프와 마리아나 투르카누

청소년이거나 청년이다. 몰도바 청년 중 다섯 명은 이미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 귀환했다. 현재는 네 명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교회와 자신들의 삶을 바꿔 놓았는지에 대해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알린 콘스탄티네스쿠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유일하게 참된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쁜 마음에 소리치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니신

사랑과 이 곳 몰도바의 개척자인 우리에게 갖는 신뢰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이 제 영혼을 채웁니다.” 현재 알린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마리아나 투르카누는 이렇게 말한다. “행복한 사람이란 것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데, 이 모두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곳 몰도바에서의 제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몰도바에서의 또다른 첫째들

작은 국가인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놓인 찌부러진 멜론 조각처럼 생겼다. 인구는 450만 명 정도이며, 언어는 루마니아어와 비슷한 몰도바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수도인 치시나우에 사는 사람들은 높이 솟은 아파트에서 산다. 그러나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도 시설도 없는 손수 지은 집에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말이 끄는 나무 마차를 타고 여행한다. 시골의 비옥한 검은 토양에서는 아름다운 과일과

침례를 받은 다섯 명 중 한 사람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모든 가족이 교회에 들어왔다. 또한 오르헤이 시에는 보다 작은 지부가 있다.

교회에서 조직한 여러 청소년 활동들도 이 곳에서는 처음 행해지는 것들이다. 치시나우 지부는 맨 처음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반을 개설했다. 청소년들은 첫 번째 슈퍼 토요일(Super Saturday) 행사를 가졌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지부가 완전한 새 건물을 최초의 집회소로 갖게 된 것이다. 건물은 2002년 12월에 헌납되었고 몰도바 개척의 기념비가 되었다.

길을 이끄

그같이 어린 회원들을 교회 개척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그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줄리아나 무스테아타는 이렇게 말했다. “몰도바의 현대 개척자가 되었다는





왼쪽: 알린 콘스탄티네스쿠와 바실 보탄은 현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왼쪽 끝: 치시나우의 집회소 마당에 모인 청년들과 선교사들. 아래쪽: 아내 나테이다와 딸 마리아, 나탈리아와 함께 선 지부장 이온 빌란. 아래쪽: 오빠와 함께 선 이리나 비지티프

사실에 제 마음과 영혼이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면, 교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복음을 나눌 기회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게오르게 주그라부는 이렇게 말한다. “네,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복음을 나눌 때 주님께 더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우리를 시작으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의 힘을 다해 이것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과 위안을 주었으며, 그들과 놀아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인 부분이 더욱 고통스러웠고, 상처도 훨씬 깊었습니다.”

이리나 비지티프도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도와 주었다. 그녀는

자녀를 돌봄

구세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청소년들이 선택한 봉사 방식에서 일부 드러났다.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치시나우 지부의 청년들은 봉사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한 가지 계획을 일년간 수행할 행사로 정했다. 지난 몇 해 동안 청년들은 여름마다 그 도시의 고아원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다.

나탈리아 글리고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청년들은 이들 어린이들의 삶이 좀더 즐거워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아래쪽: 나탈리아
클리코르가 지부의
청녀들과 함께 고아원에서
봉사하고 있다. 오른쪽:
게오르게 주그라부와
슬라바 스킨오풀은
몰도바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의 삶에 약간의 빛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리나는 다른 많은 청소년들처럼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다. 그녀는 가족이 언젠가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

구세주를 압

구세주를 알게 되는 것은 이 청소년들이 갖는 가장 훌륭한 경험들 가운데 하나이다. 카테리나 베잔은 지부 최초의 세미나리 교사였으며 현재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 중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릿들이란 것을 압니다.”

마리어나 투르카누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분이 살아 계신 것처럼, 내 구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슬라바 스킨오풀은 많은 몰도바 사람들이 복음에 관해 듣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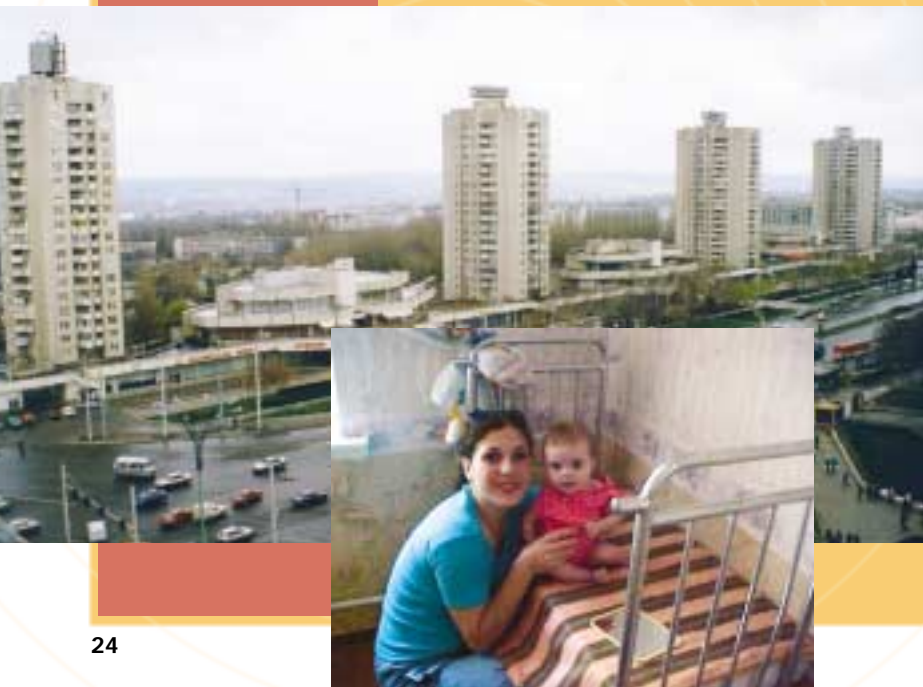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하지만, 이 나라에는 서로 도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통해,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성장해 가며, 그분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선교 사업 중인 바실레 보탄은 교회가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예언의 성취가 진일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 곳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분의 회복된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몰도바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왔다는 것에 무척 행복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척자들처럼, 이 곳의 교회 회원들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몰도바 공화국은 직업이나 기회가 별로 없는 신생국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롭게 살겠다는 결심이 미래에 대한 그들의 희망이다. ■

칼 핀치와 샌드라 핀치 부부는 캘리포니아 모데스토 스테이크 모데스토 제3와드의 회원이다. 이들은 몰도바에서 교회 교육 기구 선교사로 봉사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까?

교리와 성약 19:38: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부여 주리라. 네가 받을 복이 크리니, …”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가장 뛰어난 경험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영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감미롭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1895~1985):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홍수처럼 몰려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강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평온한 느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확신케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지하게 기도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따뜻한 느낌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훌륭한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평온함과 영적인 따뜻함이, 곧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방법대로 생활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성도의 벗, 1982년 3월호, 6쪽)

주님의 사랑을 더 잘 느끼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께 성약한 것을 행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욱 잘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간구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강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봉사를 통해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9쪽)

모로나이사서 7:48: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현재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아시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고 근면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 어려운 문제들이 감소되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며, 빛이 우리 위에 임하여 절망의 암흑이 흩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성신의 위안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77쪽) ■



비행 청소년 집단의 영향력에서 자녀를 보호함

데니스 제이 노드펠트



자녀들을 비행 청소년 집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19 99년 2월 11일에 대관장단은 전세계 교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청소년을 해할 목적을 가진 침해 요소들을 봅니다.”¹ 저는 유타 주 웨스트 밸리의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오늘날 세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침해 요소들 중 하나가 비행 청소년 집단의 영향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 청소년 집단이란 오직 그들 조직에만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세 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모여 불법적이거나 범죄적인 행위를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비행 청소년 집단의 영향력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범죄 경향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인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난폭한 범죄의 공통된 특징은 그것이 비행 소년 조직에 의해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 조직에 가입하는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 종족, 종교, 문화, 경제 등의 구분 없이 어디서나 가입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 해악으로부터 자녀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가 비행 청소년 조직에 동조하거나 가입했는지를 알려 주는 표식입니다.

- 비행 청소년 스타일의 옷을 입습니다. 스타일이 자주 변합니다. 경찰이나 지역 사회의 자율 평화 조직을 통해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숙제나 노트북, 침실벽, 개인 물품 등에 비행 청소년 스타일의 낙서나 비행 청소년 집단의 별명이 있는지 주의해서 보십시오.
- 혼자 지내기, 비밀, 권위에 대한 반항 등과 같이 행위나 태도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고 오랜 친구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 버립니다.
- 수신호와 별명, 다른 형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 갱스터 랩이나 헤비 메탈 음악에 관심을 갖습니다.
- 법 집행 기관과의 빈번한 접촉, 무단 결석, 귀가 시간을 어김, 무단 낙서, 공공 시설 파괴, 마약 혹은 알코올 소지 등을 시작합니다.

자녀가 비행 청소년 집단의 일원이거나 혹은 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그런 의심을 무시하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녀와 대화하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하지만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알리고,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부탁하십시오. 여러분과 자녀에게 지원과 격려를 주고, 비행 청소년들의 소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주는 지역 사회의 정부 기관이나 단체, 학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십시오.

아직 자녀가 어릴 때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에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대관장단은 서한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교회와 가까워지도록 그들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그 원리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가정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위험한 단체의 영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소속되려는 기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그 필요를 채워 주지 못한다면, 다른 것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강한 가족 중에서도, 자녀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 되도록, 부모가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한다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선택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비행 청소년 집단의 문제에 관해 교육하려는 시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과 비행 청소년 집단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 주라고 충고합니다. 조금 큰 아이들과는 비행 청소년 집단이나 폭력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예방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사회에서 비행 청소년 집단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이나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서 돌이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관장단은 서한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연구 및

가르침, 건전한 가족 활동 등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갖도록 권고했습니다. 때로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미나리, 주일 모임, 교회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설득된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 집단과 어울리면서 생겨나는 불행이나 낭비된 기회, 범법, 육체적 상해, 죽음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때로 자녀들이 그릇된 집단과 어울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준을 희석하거나 기대를 낮추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비행 청소년 집단과 어울리는 청소년들은 대개 개인적 존중에 높은 가치를 둡니다.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한편,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개인적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하십시오. “자식들은 여호와와의 기업”(시편 127:3)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함정을 피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영감에 찬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
메니스 제이 노드펠트는 솔트레이크 조던 북 스테이크 조던 북 제3와드의 회원이다.

주

1. See “Letter from the First Presidency”, *Liahona*, Dec. 1999, 1; “Policies, Announcements, and Appointments: Keeping Children Close to the Church”, *Ensign*, June 1999, 80쪽.





그들은 수가 많았다

파올로 마틴 엔 마카리올라

월

요일 아침에 학교에 갔다.

1,200명이나 되는 학생 중 교회 회원이라곤 겨우 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의 하나였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내게로 와서 자신들의 무리에 가담하라고 했다. 그들은 수가 많았고 피부를 뚫어 장식을 달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아이들보다 체격이 컸다. 그들은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을 괴롭혔다.

나도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보다 컸으며 소심한 편이라, 그 무리에 들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 무리에 속하면 내 소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생각 좀 해보고.”라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나는 부모님께 의견을 여쭙어 보았다. 부모님들은 내게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라고 말씀하셨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경전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었다. “여러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을 선택하여 서로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하도록 강화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십시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친구”, 12쪽)

나는 또한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제게 올바른 친구입니까?”

그다음날 아침 수업이 끝난 후에, 나는 지갑 크기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를 펼쳤다. 난 그 부분을 다시 읽었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알았다. 이윽고 “우리 그룹에 들어올 거야?” 하고 그들이 물었을 때,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왜냐고 물었고, 나는 피부를 뚫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 내 힘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단단하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나를 쳐다보는 그들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넌 인기 있는 친구들을 만들 기회를 놓쳐 버렸어.”

현재 나의 친구들은 그들과는 다른 아이들이다. 그들은 훌륭한 학생들이고, 단정하며, 훌륭한 행동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은 나를 도와 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

■ 파올로 마틴 엔 마카리올라는 필리핀 바콜로드 남 스테이크 탕굽 와드의 회원이다.

자 신들의 그룹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난 그들의 수에 위협을 느꼈다. 나는 그 문제를 주님과 상의했다.

원화: 김기 모옥코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림



벤자민 디 호요스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멕시코 남 지역

물 문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설교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예언자 아빈아다이의 감동적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와, 그것이 온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아빈아다이가 분명하게 밝혀 준 속죄의 한 부분은 우리가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육신의 소망을 버릴 때 받게 되는 권세와 관계 있습니다. 예언자 아빈아다이는 그 특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빈아다이가 제사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 바라노라.

“저가 육으로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육신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지라 아버지요 또한 아들이라 하리니,

“그리하여 육신이 영에 복종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여 한 하나님이 되고, 유혹을 견디어 지지 아니하며, 조롱과 매질을 당하며 자기 백성들에게 쫓겨나고 거절당하나 이를 참으시느니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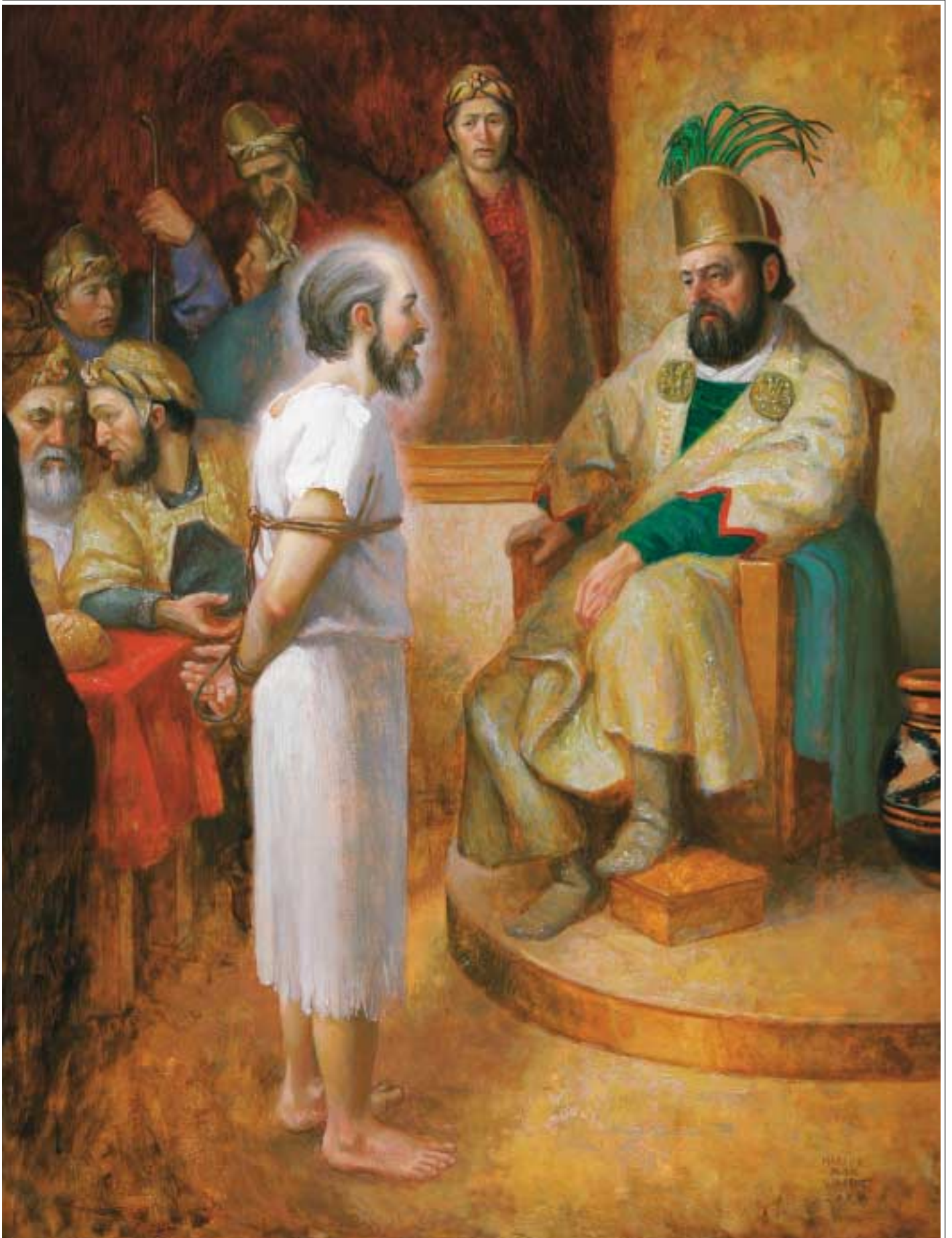
“참으로 저가 이같이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리니, 그 육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삼키운 바 되었느니라.”(모사이야서 15:1~2, 5, 7)

큰 변화를 추구함

우리가 매일 경전을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게 하는 영감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전능하신 주님의 영은 우리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이 감동적인 설교를 마치자, 그의 백성들은 “더 이상 악을 행치 아니하고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모사이야서 5:2)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노력한 후에 모든 악을 물리칠 능력뿐 아니라 선한 모든 것을 실제로 언행과 생각에 나타낼 능력을 얻었습니다.(니파이이서 9:39; 모사이야서 4:30; 앨마서 12:14 참조) 마음의 소망 중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아빈아다이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모사이야서 3:19)고자 하는 커다란 마음의 소망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예언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위한 중재자가 될 권세, 즉 자신의 육신과 의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빈아다이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가져다주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하 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육신의 뜻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특히 속죄의 희생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겹세마네에서 그분이 겪으신 커다란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간구는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자녀에 대해 커다란 사랑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순종케 하는 권세를 갖게 되신 원리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모사이야서 15:8 참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에서,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어 우리는 육으로 된 인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 몰몬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정, 속히 이르시며 권세로 가득하시어 온갖 마귀의 간사와 교활과 간계를 파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모두 주가 인도하시어 간악한 자를 위해 마련된 끝없는 고난의 심연을 건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곧고 좁은 길에 이르게 하시며”(힐라맨서 3:29)

구세주의 모범을 따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육신의 뜻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특히 속죄의 희생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겹세마네에서 그분이 겪은 커다란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라는 간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길을 여시겠다는 의지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들의 각 자녀에 대해 커다란 사랑을 지니고 계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범사에 상대되는 것에 직면하신 구세주의 겸손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항상 지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앨마서 36:3 참조) 니파이가 그의 시편에서 전한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읽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공홀히 여기사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부르짖기를, 오 나는 불쌍한 인간이로다. 나의 육신이 나를 슬프게 하며, 나의 죄가 나를 비탄케 하는도다 하고 말하니라.

“이는 나를 쉽사리 뒤엎어 버리는 유혹과 죄 가운데 묻혀 있음이라 ...

“또한 어찌하여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야 하느뇨? 어찌하여 유혹에 굴하여 악마가 마음으로 들어와 나의 평화를 깨지며, 나의 심령을 아프게 하게 하는고? 어찌하여 내가 나의 원수로 하여 노하느뇨? ...

“오 주여, 내가 당신께 의지하여 왔으며,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육신의 권세에 저주가 임함을 앞에 내가 육신의 권세를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인간을 의지하거나 육신을 저의 권세로 삼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나이다.”(니파이이서 4:17~18, 27, 34)

말일성도로서 우리 각자가 생활에 받아들여야 할 많은 품성 가운데 하나로 예언자 아브나다이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순종함

말일성도들은 교회에서의 부름을 통해 서로에게

봉사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기 때문에 부름을 받아 서로에게 봉사하고, 관리하고, 성역을 베풁니다. 이러한 봉사에는 시간과 노력과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구됩니다. 그 기회는 영감과 그분의 권능을 부여 받은 종들을 통해 주어집니다.

다음 방법들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교리와 성약 4:2) 다해 봉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의 뜻을 버릴 수 있는 몇 가지 예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세상적인 일들을 제쳐놓고 주님의 집에 가서 구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도록(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정기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찬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킴으로써 영으로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의 일부가 되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궁핍한 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금식은 흥악의 결박을 풀어 주고, 명에의 줄을 끌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명에를 풀도록 돕습니다.(이사야 58:6~7 참조)

우리가 자신의 필요 사항을 제쳐놓고 편안함을 포기할 때,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모로나이서 6:4)되어야 할 새로운 개종자나 다른 사람을 방문할 때,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교리와 성약 81:5)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의 뜻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교리와 성약 58:27)할 때, 우리는 육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에 내리시는 모든 것에, ... 기꺼이 순종”(모사이야서 3:19)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가족을 튼튼히 세울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본질을 이해함

우리가 존재의 영원한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것들에 올바른 가치를 부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쉽습니다. 한번은 희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시장에 있는 많은 상품들을 보고 멈추어 서서 이렇게 경탄했다고 합니다. “저것들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행복을 찾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종종 전혀 쓸모가 없거나 심지어는 파괴적인 것들을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제력을 갖고 우리 목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보라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범사에 축복을 받으며, 이들이 끝까지 충실할진대 하늘에

영접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리로다.”(모사이야서 2:41)

하나님의 왕국, 혹은 그분의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가장 연약한 성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뜻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뜻이라고 한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의 영감에 찬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¹ 구세주의 속죄와 구속은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가며 조금씩 조금씩 육체적인 반대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주

1. “아버지의 뜻과 함께하리로다”,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22쪽.



우리는 기꺼이 매일의 생활에서 세상적인 일들을 제쳐놓고 주님의 집에 가야 합니다.





멕시코, 백만의 회원

멕시코 회원들이 백만 명에 이르게 됨으로써 역사상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과 모범은 그 나라 사람들의 삶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돈 엘 설 교회 잡지

이미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멕시코는 올해 안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말일성도의 수가 백만에 이르는 첫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사건은 최근 교회 회원이 멕시코와 중남미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가 된다. 멕시코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전의 일이지만(“멕시코에서의 교회의 중요한 사건들”, 42쪽 참조), 교회의 성장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가속화되었다. 1973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12대 대관장이 되었을 때, 전세계의 교회 회원 수는 3백 3십만이었으나, 지금은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에서만 그 숫자를 능가하고 있다.

많은 회원들은 그러한 성장에 대해 예언의 성취이거나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간증한다. 그들은 이러한 성장이 가져다준 축복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 한 예로, 수십 년

교회에서 개척자였던 조부모와 부모들은 멕시코 찰코 스테이크의 이사야아스 마르티네스와 그의 아내 마리아, 아들 이사이, 딸 샬리처럼 회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 놓았다.

동안 멕시코에 있는 회원들은 성전에 가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을 해야 했다. 따라서 1983년에 멕시코시티에 성전이 헌납된 것은 그들에게 가슴 벅찬 일이었다. 현재 멕시코에는 12개의 성전과, 20개의 선교부, 그리고 199개의 스테이크가 있다.

교회 회원을 살펴보면 거대한 도시인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전문 직업인들로부터 외딴 농촌 지역에 있는 농부와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들을 결속시켜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서로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다. 멕시코 성도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을 글이나 사진으로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래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통해 회원들의 삶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결혼

멕시코 몬테레이 성전은 간선 고속 도로 옆 언덕에 우뚝 서 있다. 건물과 경관의 장려함을 보지 않고 그 곳을 지나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로만 로드리게스와 노르마 로드리게스는 처음 성전 옆을 지나갈 때 일반 공개를 알리는 안내 광고를 보았다. 그들은 광고에 끌려 차를 멈추고 가족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다.

국법이 요구하는 대로 일반 결혼을 한 그들은 이미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으며 세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들이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상적인 교회의 결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몬테레이 성전을 방문하는 동안, 그들은 전에는 느끼지 못한 어떤 것을 느꼈다. 그 곳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 노르마도 똑같은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러한 성전을 갖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로 하고, 그 곳에



멕시코

시코 몬테레이
성전 꼭대기에
있는 모로나이

상처림, 회원들은
멕시코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락처를 남겨 두면서 선교사들의 방문을 요청했다.

“저는 우리가 또다시 결혼을 준비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올바른 일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를 드렸으며, 영원한 결혼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로드리게스 자매는 말한다.

침례를 받은 지 꼭 1년하고도 8일째 되던 2003년 5월 15일에, 로드리게스 부부와 한 명의 딸과 두 아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결혼, 즉 가족의 영원한 인봉을 위해 다시 성전을 찾았다. 그들은 현재 멕시코 산 니콜라스 스테이크 산토 도밍고 와드의 회원으로서, 형제는 장로 정원회 회장이며 자매는 방문 교육 책임자이다. 그들의 자녀, 즉 14세인 바네사와, 11세인 로만, 그리고 9세인 오마르는 각각 초등학교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와드에서 행하는 여러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부부는 교회 회원이 되기로 한 자신들의 결심을 재확인시켜 준 영적인 경험에 대해 말한다. 로드리게스 형제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인생에서 세속적인



김달연 대관장의 꿈

“1946년에 멕시코에 왔을 때 ... 저는 여러분이 발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

“...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대신 책임 있는 직분에서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저는 리하이 백성들이 기사와 건축가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저는 여러분의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 세상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업가와 공장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저는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여러분의 백성을 돌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멕시코의 남녀들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사회 사업에 대한 영향력과 더불어 신문사의 소유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예술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저는 교회가 걸음의 폭을 넓게 하여 발전하는 것을 보았으며, 와드와 스테이크가 조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성전이 건립되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젊은이로 그 곳이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것이 제가 꾸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찌면 실현이었는데도 모릅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위대한 백성이 장차 이루게 될 일을 제게 보여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달(1895~1985) 대관장, Conference Report, 1977년, Mexico City Area Conference, 31쪽.





왼쪽: 아말리아 에스트라다 카테로,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근처 농장에 있는 노리가 가족들; 몬테레이에 있는 교회 고용 자원 센터에서 일하는 두 직원. 맨 위: 멕시코시티에 있는 교회의 베네메리토 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휠체어를 준비하고 있다. 위: 멕시코시티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의 수업.

것을 추구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금은 생의 참된 깊이와 영적인 명료함으로 인생을 보고 있다. “저는 우리 삶의 각 부분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늘 그랬던 방법으로

멕시코의 여러 지역에 있는 말일성도 개척자들은 비슷한 경험들, 즉 오랫동안의 고립과 박해와 더딘 발전, 그리고 최근 들어 많은 교회 회원들이 멕시코 사회에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경험에 대해 말한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목테주마 스테이크 라스 아후일스 와드의 프란시스코와 에스텔라 막달레노는 1960년대 중반에 침례를 받았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종교에 관해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다. 처음에 이웃 사람들은 그들이나 그들의 신앙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막달레노 가족은 계속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했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들과 세 명의 자녀는 모두 멕시코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다. 막달레노 가족이 그 곳에 사는 동안, 이웃들은 그들에게 찾아와

종교 문제에 대해 권고를 구하기도 했다.

멕시코 메리다 센트로 스테이크 아에로푸에르토 와드의 식스타 마리아 마르티네스는 1974년 침례를 받을 당시 62세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성전 사업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남부 멕시코에서 미국 애리조나 메사까지 여러 번에 걸쳐 장거리 성전 여행을 했다. 나중에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는 기회도 가졌다. 마르티네스 자매는 여러 해 동안 5대에 걸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성전 의식을 마쳤다. 그녀는 생전에 메리다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성전이 건립되는 것을 보았다. 현재 92세인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내 기쁨이요, 내 삶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에르미타 스테이크 나르바르테 와드의 아말리아 에스트라다 카테로는 회원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녀의 조부모는 1880년대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가 어렸을 때, 그들의 작은 마을에서 유일한 회원은 그녀의 가족뿐이었다. 30대 중반이 된 에스트라다 자매가 1956년에 멕시코시티로 이사를 갈 때까지 그녀는 교회에서 완전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1963년에 처음으로 메사로 성전 여행을 떠났다. 지금은 가능한 한 자주 근처에 있는 멕시코시티 성전을 방문한다. 직업이 교사인 에스트라다 자매는 모든 교회 보조 조직에서 가르쳤으며 상호부조회 회장도 역임했다. 그녀가 어렸을 적에 살던 작은 마을에서는 그 고장의 종교를 믿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현재 그녀의 이웃들은 그녀에게 찾아와 더 훌륭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묻곤 한다. 이웃에 있는 한 청년은 그녀를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테이크를 강화함

“저는 얼마 전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 말했습니다”라고 멕시코 찰코 스테이크 후이칠징고 와드의 마리아 에르난데스 데 마르티네스는 말한다. 개종자인 그녀는 성전 인봉과 복음이 그녀의 가족에게 가져다준 모든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남편인 이사야스 마르티네스는 이렇게 말한다. “조부모의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그 분들이 교회 회원으로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들은 1940년대에 침례 받았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지역 신권 지도자로 봉사했다.

마르티네스 형제는 25세에 감독으로 부름 받았으며 현재는 스테이크장이다.

마르티네스 형제는 전자 기사이며, 부인은 교육자로서 훈련을 받았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여러 조부모와 부모들이 후손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애쓴 결과라고 그는 말한다. 그 결과, 현재 멕시코에 있는 교회 지도자 세대 중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원리에 따르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발전한 가시적인 본보기가 되기도 한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추루부스코 스테이크 에스트레야 와드의 아만도와 클라우디아 할린데스가 그 예이다. 변호사인 그는 회사원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관광 경영을 공부한 할린데스 자매는 남편 회사에서 함께 일한다. 멕시코에서 성공을 거둔 할린데스 형제는 미국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라는 유혹을 거절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는 멕시코에 남아 교회 건설을 돕기로 했다. 그는 멕시코 사회에서 회원의 역할을 다하라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의 꿈을 실현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한다. (“김볼 대관장의 꿈”, 36쪽 참조)

아만도와 클라우디아는 결혼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 복음을 중심으로 한 목표를 세웠다. 할린데스 형제는 그가 제공하는

훈련에 복음에 기초를 둔 많은 원리를 사용한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으로 발전하는 데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에도 침례를 받고 여러 주 혹은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영영 돌아오지 않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은 친구와, 교회에서의 책임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적인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권고에 따르는 신권 지도자들은, 완전한 활동을 통해 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데려오는 데 그 권고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부 회원들은 영적인 속삭임이나 통찰력을 통해 복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해





멕시코 교회의 뿌리

18 70년대 중반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멕시코에 사자를 보내어 미국에서의 박해를 피하고, 라틴 아메리카에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주할 지역을 찾아보게 했다. 1885년에 최초의 말일성도 이주자가 도착했으며, 최종적으로 북부 치와와에 있는 카사스 그란데스 강가에는 일곱 개, 북부 소노라에 있는 바비스페 강가에는 두 개의 이주 지역이 건립되었다.

개척자들은 사막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이주민들은 몇 년 동안 평화로운 가운데 번영했다. 1895년에 멕시코에서는 최초로 콜로니아 후아레스에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1910년에 시작된 혁명 기간 중에 앵글로 이주민들은 추방당했으나, 나중에 일부가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돌아왔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사라졌지만 북부 치와와에 있는 콜로니아 두블란과 콜로니아 후아레스는 아직도 많은 초기 이주민 후손들의 고향으로 남아 있다.

다음과 같은 많은 앵글로 이주민의 이름이 교회사에 잘 알려져 있다. 보우먼, 브라운, 콜, 아이어링, 해치, 아이빈스, 롬니, 스미스, 테일러, 텔리, 그 외 다수.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부대관장은 그 곳에서 출생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아내인 카밀라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의 부친도 그 곳 출생이며, 그들은 남매였다. 그 초기 정착민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으며, 오늘날 멕시코인을 조상으로 하는 회원은 앵글로 개척자의 후손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콜로니아 후아레스는 멕시코에 있는 교회 성전들 가운데 하나의 본거지이다. 멕시코 치와와 콜로니아 후아레스 성전은 1999년에 헌납되었다.



왼쪽: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카를로스 와 일리나 모레이라, 몬테레이; 과달라하라에서 한 성찬식의 개회; 한 멕시코시티 주일학교 반원들. 위: 몬테레이에 있는 마리아 마르티네스 가족.

주었는지를 상기하면서 스스로 돌아오기도 한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레포르마 스테이크 야르디네스 와드의 올란다 엘시 디아스 데 베가는 1979년에 침례를 받고 나서 밤늦게까지 남편과 함께 복음을 공부하던 일을 회상한다. “우리는 마치 경전에 굶주린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된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는 한 오래된 회원으로부터 부당하게 비판을 받고는 더이상 모임에 나갈 수가 없었다. 베가 가족은 4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다가 그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축복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베가 부부는 몇 년째 활동 회원으로 있으면서 가족과 와드,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힘을 나누고 있다. 더 훌륭한 부부가 되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가운데 커다란 축복이 있었다고 베가 형제는 말한다. 복음은 “생각하는 방식과 생활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가운데 성장했으며, 현재는 손자녀들이 교회 활동을 통해 똑같은 영적인 봉사의 기회를 얻고 있다. “아이들의



위: 메리다에서 와드 우정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 오른쪽: 멕시코 메리다 성전.

훌륭한 모범으로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그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라고 베가 자매는 말한다. 그들의 네 자녀는 부모의 모범을 따라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생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축복을 나눔

멕시코 과달라하라 목테주마 스테이크 프리마베라 와드의 열한 살 된 사무엘 브리오네스는 자신의 선생님을 과달라하라 성전 일반 공개에 초대함으로써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성전을 방문하고 난 후 그녀는 선교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사무엘과 열두 살 된 형에게 가라데를 가르친 호세 홀리오는 두 소년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침례를 받고 지금은 스테이크 집행 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만 진리가 있는 곳을 모릅니다”라고 그 소년들의 아버지와 호세 홀리오는 말한다. 회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알기 위해 성신에 주의 기울이면 그들과 진리를 나누는 것이 쉬워진다고 브리오네스 형제는 말한다. 그의 아내 조세피나는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싹이 트고 나면 빠르게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들을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는 부부에게 신앙을 전했으나 그들은 시간이 맞지 않아 교회 모임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거절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쉽고 신속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멕시코 토레온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메리다 출신의 마우로 힐은 회원들이 보여 주는 모범이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모범적인 회원들의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복음이 멕시코를 더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유카탄 반도에 있는 회원들이 지난 20년 이상 십일조의 법을 위시하여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는 가운데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꾸준히 발전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한 멕시코에 있는 여러 성전들은 번성하고 성장하는 가시적인 상징일 뿐이라고 말한다. “성전들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성전의 영향

애리조나 메사까지 일주일에 걸친 성전 여행을 기억하는 회원들은 이제 멕시코 어느 지역에서든 하루면 성전에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특정한 토요일이 되면 먼 지역의 회원들이 타고 온 여러 대의 버스를 멕시코에 있는 성전 주차장에서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주님의 집 청소를 돕는 일도 기쁘게 생각한다. 성전장단 제2보좌인 알프레도 고메스는 교대로 성전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회원과 인사를 나눈다. 고메스 형제가 그에게 피곤하냐고 물으면 그는 “예, 그러나 기분 좋은 피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힘찬 모습으로 성전을 떠난다.

“이곳에 있는 회원들에게 성전의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라고 고메스 형제는 말한다. 일부 먼 지역에 있는 회원들은 여행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식사를 거르기도 한다. “회원들은 성전이 자신들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의식을 받으러 혹은 청소를 하러 이곳에 올 때 그들은 성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다고 그는 설명한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의 계획은 성전을 회원들에게 선사한 다음 회원들을 성전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멕시코 전역을 통해 회원들은 성전 의식을 받으며, 그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있다. 마타모로스과 시우다드빅토리아에서 마사틀란과 과이마스까지, 푸에블라와 캄페체에서 아카풀코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은 가까이에 있는 성전을 통해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

몬테레이에서는 성전 건립에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꿈에서 그 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간증하는 회원들이 있다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칠십인 정원회 회원이었던 에란 에이 콜 성전장은 말한다. 그 곳에는 성전 선교사들이 없으며 모두 지역 회원이라고 콜 성전장은 말한다. 성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멕시코내 교회의 중요한 사건들



산페드로 마르티르 예배당은 1938년에 헌납되었음.

1847년 7월: 브리감 영 대관장이 이끄는 말일성도 개척자들이 멕시코 영토에 속해 있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함.

1874년: 브리감 영 대관장이 다니엘 더블류 존스에게 몰몬경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도록 부름을 주었으나 존스 형제는 스페인어에 능통하지 않았음. 멜리톤 지 트레요라는 스페인 사람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옴. 그의 도움으로 몰몬경 일부분이 출판됨.

1875년 1월 6일: 최초의 말일성도 선교사가 멕시코에 들어감.

1876년: 소노라 주에서 두 번째 선교 사업이 시작됨. 최초의 회원들이 침례 받음.

1879년 11월 15일: 최초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수도에 도착함: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세스 태처 장로와 멜리톤 지 트레요와 제임스 제트 스트리트.

1879년 11월: 플론티노 로다카나티를 지부장으로 하여 멕시코에 최초의 지부가 조직됨.

1880년 1월 25일: 멕시코시티에 있는 호텔 방에서 태처 장로가 멕시코를 선교 사업을 위해 처음으로 헌납함.

1881년 4월 6일: 포포카테페틀에서 태처 장로가 멕시코를 다시 복음 전도와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 헌납함. 여덟 명의 다른 사람들이 멕시코 최초의 교회 대회를 위해 화산 언덕에 모임.

1885년: 앵글로 말일성도에 의한 최초의 멕시코 이주가 시작됨. 결국 치와와에 일곱 개, 소노라에 두 개의 이주 지역이 설립됨.

1886년: 멜리톤 지 트레요와 제임스 제트 스트류어트가 몰몬경의 스페인어 번역을 완성함, 몰몬경이 출판됨.

1889년 중반: 유타에서의 교회 박해로 인해 멕시코에서의 모든 선교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됨.

1895년 12월 9일: 치와와의 말일성도 이주지에서 후아레스 스테이크가 조직됨. 안토니 더블류 아이빈스(나중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 됨)가 스테이크장이 됨

1901년 6월 8일: 멕시코에서 선교 사업이 재개됨.

1907년 9월: 레이 루세로 프렛(나중에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 됨)이 멕시코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 받음. 그의 부름은 24년이나 계속됨. 1901년에서 1910년 사이에 멕시코 선교부는 지역을 확장하여 멕시코, 허달고, 모렐로스 및 연방 지역을 포함시킴.

1913년 8월 29일: 1910년에 발발된 멕시코 혁명으로 프렛 선교부장과 선교사들이 강제로 추방되고 선교부가 폐쇄됨. 혁명으로 인해 회원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됨. 일부 회원들이 살해됨; 라파엘 몬로이와 빈센트 모랄레스가 1915년에 처형되었으며 회원들 가운데 순교자로 알려짐. 전쟁은 이주한 회원들을 몰아내는 데 박차를 가함.

1922년: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돌아감.

1937년: 멕시코 선교부는 *리아호나*의 전신인

*In Yaotlapiyou*를 출판하기 시작함.

1960년: 멕시코에 말일성도 교회 학교가 설립됨. 1964년에 멕시코시티에 설립된 예비 학교인 베네메리토 데 라스 아메리카스는 학생들의 훌륭한 품성으로 유명해짐.

1961년 12월 3일: 대부분 멕시코인을 조상으로 하는 성도들 가운데 최초의 스테이크가 멕시코시티에 조직됨. 교회에서 최초로 스페인어를 사용한 스테이크임.

1967년: 멕시코시티 스테이크가 분리되어 멕시코시티 북 스테이크가 조직되고 멕시코인이 조상인 최초의 스테이크장 아그리콜 로자노 에레나가 스테이크장이 됨.

1972년: 멕시코의 회원이 100,000명에 이름.

1983년 12월 2일: 멕시코시티 성전과 방문자 센터가 헌납됨.

1989년 7월 25일: 멕시코 테살코 스테이크가 조직되면서 멕시코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100개의 스테이크를 가진 국가가 됨. 멕시코의 회원 수는 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됨.

1994년 12월 11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이 멕시코를 방문하면서 교회에서 2,000번째의 스테이크인 멕시코 멕시코시티 콘트레라스 스테이크를 조직함.

2004년: 멕시코는 2개의 관리 지역과, 12개의 성전, 20개의 선교부, 그리고 200개에 육박하는 스테이크와 1,000,000명에 달하는 회원을 갖고 있음.

제공: *El Museo de Historia del Mormonismo en Mexico, A. C.*



성전 사업의 영을 느꼈다. 얼마 전 한 스테이크 조직에서는 성전 의식을 해 주기 바라는 3,000명의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가져오기도 했다.

영생에 대한 소망

메리다에 지어진 최초의 집회소는 그 건축을 도운 회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것으로서, 당시의 정책은 건축 기금의 일부를 회원들이 지불하는 것이었다고 멕시코 메리다 스테이크 자살아 제1와드의 사이디 카스틸로 데 가오나는 회상한다. “회원들은 건축비의 반을 순수한 노동력으로 지불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어린 사이디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벽돌 기계를 조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그 곳에서 장차 남편이 될 네오를 만났는데 그는 건축을 돕던 노동 선교사였다.

“건물을 헐어 낼 때 그것은 제게 몹시 섭섭한 일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곳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사이디는 계속한다. 그 부지에는 멕시코 메리다 성전이 자리잡고 있다.

사이디는 십대 소녀로서 꿈에 자신이 메리다 성전에 있는

멕시코시티 성전이 헌납된 직후 그 곳에서 인봉을 받았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다양한 신권 조직 및 보조 조직 부름을 통해 교회를 도왔다. 2000년에 메리다에 성전이 헌납되었을 때, 가오나 부부는 그 곳에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최초의 성전 봉사자로 성별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지난 2002년 성전에서 봉사하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 사이디는 동반자를 잃은 슬픔을 이겨 내게 해준 것은 영원한 결혼의 본질에 대한 그녀의 지식이었다고 말한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저도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일을 계속하도록 제게 힘을 준 것은 복음의 지식이었습니다. 복음은 제게 있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남편에게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아픔을 달래기 위해 다시 한번 복음대로 생활하며 봉사하기로 했다. 성전 봉사 이외에도 그녀는 다섯 명의 자녀와 손자 손녀 그리고 교회 부름에서 위안을 얻었다. “저는 일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것은 멕시코에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사실일 것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굳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매일 매일 멕시코에 있는 교회 회원을 증가시키면서 김볼 대관장의 중대한 꿈을 실현시키는 일을 돕고 있다. ■



위: 마누엘 가르시아, 과달라하라, 1968년 스테이크 대회 책자를 들고 있음; 메리다의 카를리토스, 카를로스 및 아라셀리 부르고스. 오른쪽: 메리다의 마리아 테레사 슬리스 데 에르실라와 마리아 아나스타시아 슬리스 자매.

모습을 보았다. “저는 성전이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살아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35년도 더 된다. 그들은



우리 애가 물에 빠졌어요!

히로푸미 나카츠키카

한 번은 주일학교 교사가
공과반에 있는 귀환 선교사
중에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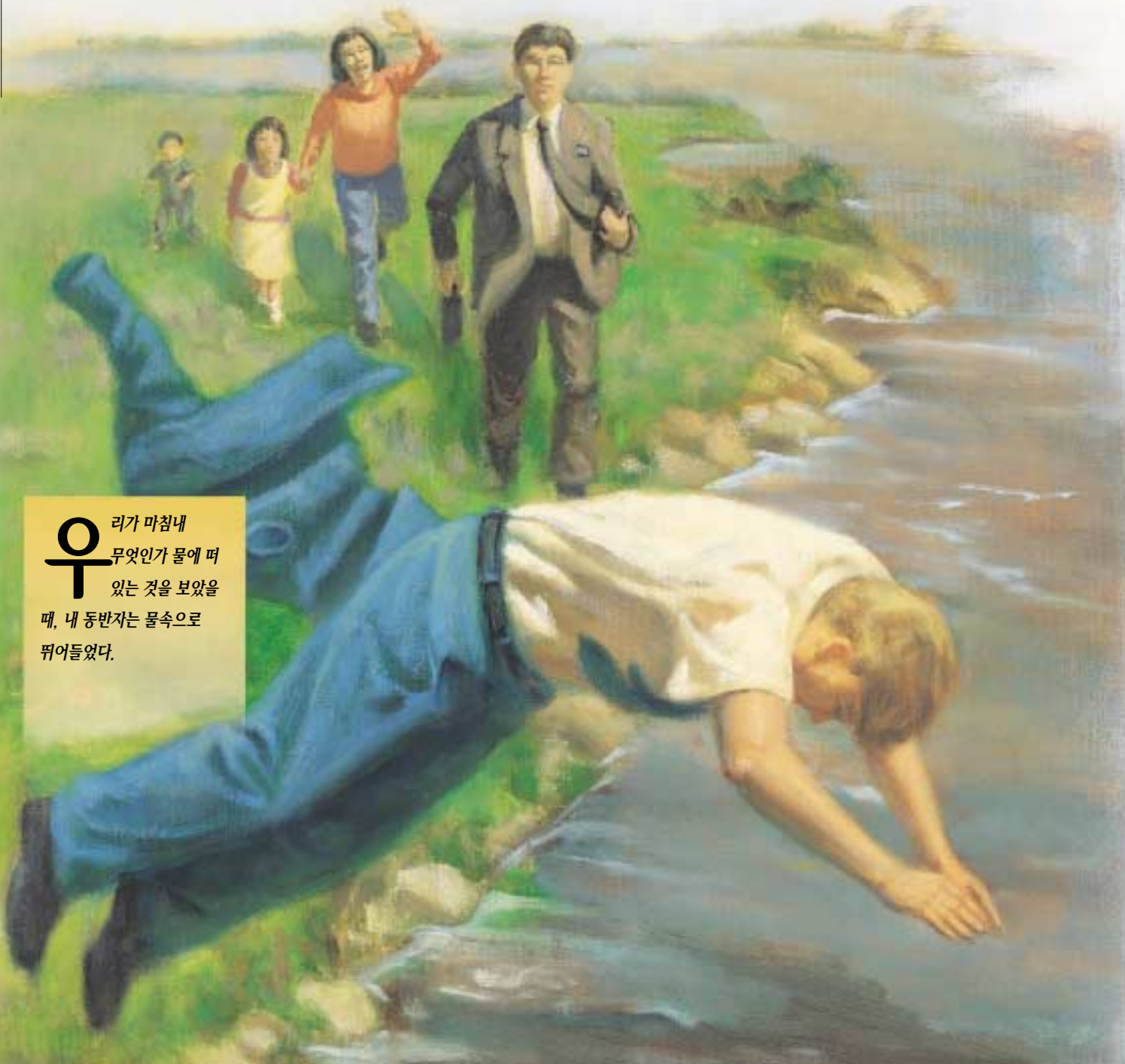
사업을 하는 동안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선임 동반자로 열심히 일하던 존
리더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내 동반자의 구두는 몹시 낡았으며 길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발에 물집이
많이 생겼다. 어느 날 우리는 그가 구두를
갈아 신어야 해서 점심 때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고 집을 나설 때,
나는 그가 물집 때문에 근처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반자는 먼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강독을 따라 걷고 있는데, 한

우리가 마침내
무엇인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동반자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여인과 여러 명의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도와 주세요. 우리 애가 물에 빠졌어요!”라고 여인이 외쳤다. 아이가 강에 빠졌는데 물이 흙탕물이라 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잠시 동안 강을 살펴보다가 마침내 무엇인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내 동반자는 더러운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건져 내었다. 아이의 입술 색은 변해 있었고 숨을 쉬지 못했으며,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를 소생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응급 의료원들이 도착하여 인공 호흡을 시키자 마침내 아이는 물을 토해 내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었으며, 아이가 숨을 쉬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 경험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다. 주님은 내게 선교사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내 동반자가 이 소년에게 육체적으로 해 주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한 반원이 내게 어디에서 봉사했느냐고 물었다.

“일본 삿포로 선교부요.”라고 내가 대답했다.

“형제님이 그 아이를 도와준 곳이 아시히카와였습니까?”라고 그가 물었다.

“예.”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이 말한 그 소년은 제 동반자가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침례를 받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는 아시히카와로 이동 명령을 받아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어떤 선교사가 강에 빠진 자신을

구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동반자가 걷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먼 지역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은 것이나 그 시간에 강둑을 걷게 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물에 빠졌던 소년은 그를 구해 준 선교사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어한다. 나는 14년 전에 선교 사업을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이 소년이 선교사로 나갈 때 어떤 의미에서 나의 선교 사업은 계속되는 일이 될 것이다. ■

히로푸미 나카츠키는 일본 오카야마 스테이크 요나고 와드 회원이다.

두 개의 똑같은 테이블

손 쿠앙 레가 베스 엘리스 레에게 들려준 이야기

19 75년 사이공이 함락되기 3일 전 베트남을 탈출한 후, 대가족 중 식구 다섯 명과 나는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작은 이동 주택에 살고 있었다. 우리가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는 것은 작은 가방뿐이었으며 난민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영어를 배웠다. 자매들 중 일부는 베트남에서 교회에 가입했으며 나는 최근에 개종했다. 와드 회원들은 우리의 궁핍한 상황을 보았으며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는 새로 이주해 온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

제사 정원회 회원인 나는 인근에 대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존슨 형제와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을 하도록 지명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존슨 형제가 우리 집에 식탁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다음날 그는 약간 이상하게 생긴 테이블을 갖고 나타났는데 그 테이블은 트레일러 벽에 붙어 있는 부엌 싱크대에서 조리대까지 딱 맞게 연결되는 매우 효율적인 테이블이었다.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한 이유는 테이블 다리 가운데 두 개는 테이블 윗면과 어울렸으나 두 개는 그렇지 않았고 또한 테이블 한쪽 모서리를 따라 여러 개의 나무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곧 이 유일한 테이블을 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는 데 사용했다. 우리는 그때까지도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면 바닥에 앉아서 순수한 베트남 식으로 천을 깔고 음식과 밥공기, 그리고 젓가락을 펼쳐 놓고 식사를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약속한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가기 위해 존슨 형제를 기다리며 그의 집 현관 안에서 있었다. 가까이 있는 부엌에서 나는 우리 가족에게 준 것과 똑같은 테이블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테이블에는 나무못이 있었으며 존슨 가족의 테이블에는 그 자리에 빈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이 인정 많은 형제가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알고 식탁을 반으로 자른 다음 반쪽의 테이블에 각각 다리를 만들어 붙였다는 것을 알았다.

존슨 가족이 이 작은 테이블에 다 앉을 수 없는 것은 분명했다. 그 테이블을 반으로 나누지 않았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존슨 가족이 우리처럼 식사하는 것을 배워 가족 식사를 할 때는 순수한 베트남 방식으로 바닥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평생토록 이 친절한 행동은 내게

준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상기시켜 주었다. ■

손 쿠앙 레와 베스 엘리스 레는 텍사스 허스트 스테이크 파크 글렌 와드 회원이다.

그 여인은 내 기도의 응답이었다

도리 라이트

몇 년 전 어느 흐린 날 내 친구가 전화를 걸어 그녀와 함께 유타 조던 리버 성전에 참석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 날 나는 세상적인 일들을 걱정하고 있던 터라 썩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나는 자신의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느꼈으며 무엇보다도 와드에서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잠시 망설인 후에 나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들이며 마음속으로 내가 성전에 가서 주님의 사업을 하면 그분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도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성전 의식에 참석했으나 도움을 달라는 간구에 대한 특별한 응답은 없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친구를 기다리는데 휠체어를 탄 여성의 휠체어가 내게 부딪혔다. 아픈 다리를 문지르기 위해 허리를 숙이던 내게 그녀의 상냥한 소리가 들렸다. “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물었다. “자매님, 괜찮아요?”

나는 머리를 들어 순수한 사랑이 가득 찬 천사 같은 얼굴을 보았다. 그 여인은

내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다. “이 교회에는 자매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자매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들도 자매님에게 다가올 거예요. 자매님은 주님의 왕국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이며 사랑 받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으며 그 여인이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몇 분 동안 나는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 나는 다시 자신을 가다듬고 기쁨의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자매님은 제 기도응답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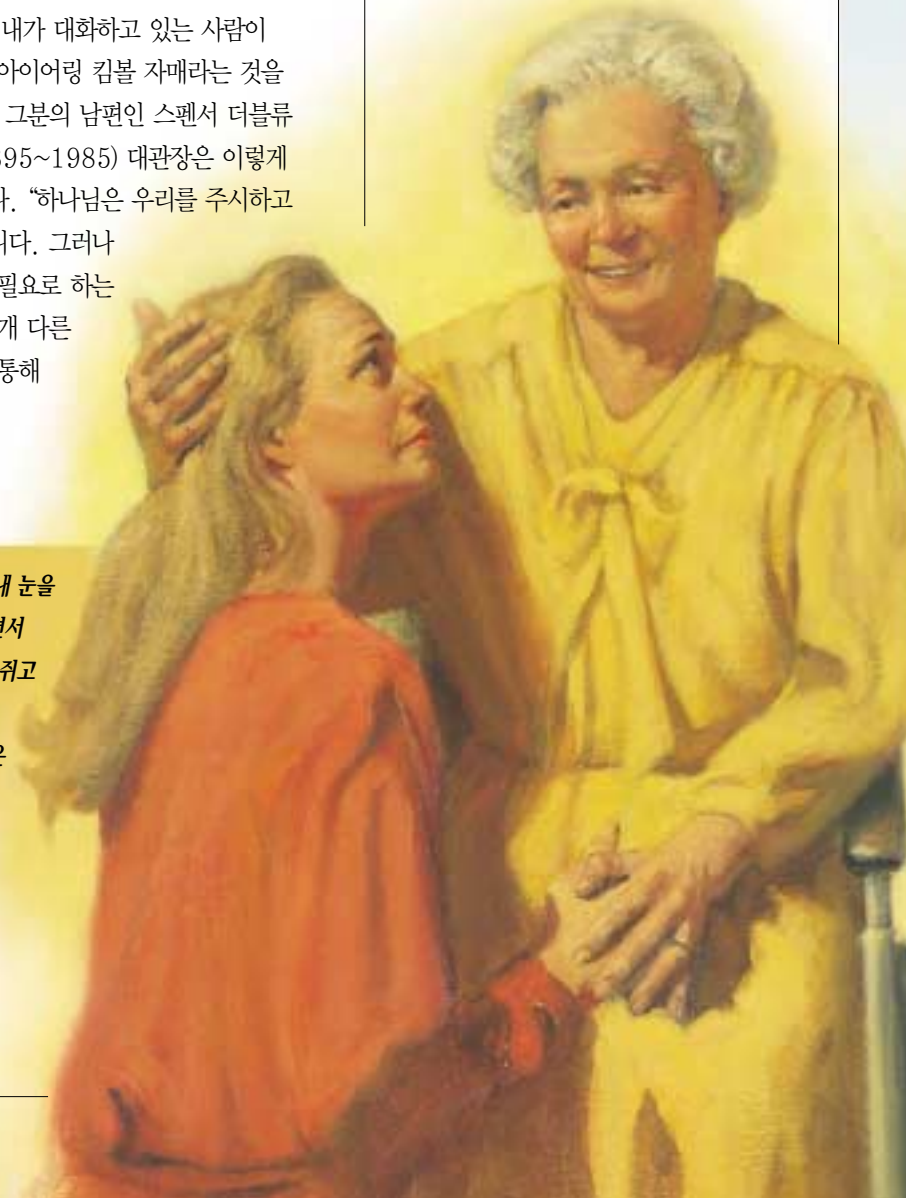
나는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카밀라 아이어링 김볼 자매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남편인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살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개 다른 사람을 통해

충족됩니다.”(“풍요로운 삶”, 성도의 벗, 1979년 6월호)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나는 그 날 이후로 사랑을 나누어 주겠다는 힘을 얻었다. 그 영광스러운 날 주님의 집에서 어떻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도응답에 대한 응답이 주어졌는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

도리 라이트는 유타 이스트 툴러 스테이크 레이크뷰 와드 회원이다.

그 여인은 내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다. “이 교회에는 자매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알고 계십니까?

개척자 시절

1847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에 걸쳐 첫번째 말일성도 개척자들이 박해를 피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땅을 찾아 솔트레이크로 왔다. 그 개척자들은 미국 서부에 교회를 세웠으며, 여기서 복음이 세상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아래에 개척자들의 희생을 기념하고 이 달에 그들에 대해 더 잘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다.

- 여러분에게 개척자 조상이 있다면 그들의 일지와 역사를 읽어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는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 여러분의 나라나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침례 받은 회원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그들도 개척자들입니다.
- 개척자들이나 회복을 기념하는 찬송가를 외워 보십시오.
- 더욱 자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정원을 가꿀 수 있으며, 바느질을 배울 수도 있고, 응급 처치를 실습할 수도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반 또는 정원회 회장단의 보좌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장, 청남 또는 청년 지도자들, 그리고 신권 지도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임무 지명을 행하거나 단순히 정시에 모임에 오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주의깊게

있습니다.

- 청소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활동, 또는 개인 발전 프로그램 활동을 위해 지역에 있는 사적지의 청소를 자진해서 행하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만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 편이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출애굽기 17:12)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보좌들이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보좌로서 여러분은 그들의 좋은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배경 사진: 마티 메이요; 그림: 화가 마상,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아론과 훌; 그림: 벨로이 에이 이튼, 1847년 7월 24일 에미그레이션 캐넌에서

- 오늘부터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일지를 쓰기 시작하여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생애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영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경전과 리아호나

저는 열아홉 살로 4년 전에 침례 받았습니니다. 저는 이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전과 교회 잡지들을 읽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저는 또한 리아호나를 접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간증은 리아호나를 읽음으로써 강화되었으며, 세상 여러 곳에 있는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영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경전과 리아호나를 사랑합니다.

에멀린 엠 퀴니트,
아구오우 필리핀 스테이크
로자리오 와드

리아호나가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다

리아호나를 읽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자주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언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의 필요 사항에 답하십니다.

저는 2003년 3월호 리아호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 메시지는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 원리들을 순종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스키아 카라 피에르 루이스,
포타우 프린스 하이터 스테이크,
센트럴 와드



선하고 유익한 원리

리아호나가 도착할 때마다 저는 이 잡지에서 선하고 유익한 원리들을 배우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제가 가장 읽기

좋아하는 부분은 질의 응답과 대관장단 메시지 및 교회 뉴스입니다. 저는 교회가 회복되고 제가 회원인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를 느낍니다.

거루자 실바 도스 산토스,
브라질 몬테세 포르탈레자 스테이크,
엑스페디시오나리오스 와드

봉사하기로 결심함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표지를 보고 저는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10월호는 선교사를 다룬 특집호였습니다. 제가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저는 리아호나를 통해 선교 사업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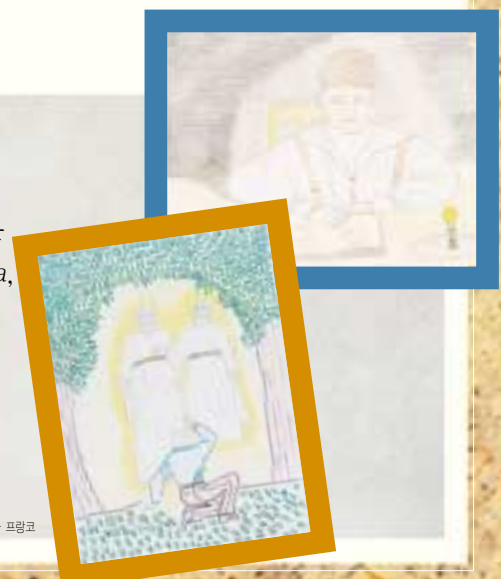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말일성도의 소리를 읽기 좋아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데이비드 아바로스 밴더 장로,
멕시코 베라크루스 선교부

어린이 작품 요청

리아호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 및 그의 생애의 여러 사건들을 묘사하는 어린이 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품을 원하시는 3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 여러분은 자신의 작품을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Children's Art,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주소 cur - liahona - imag@ldschurch.org입니다. 보내실 때에는 이름과 나이,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를 적으시고 작품에 대한 짧은 설명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여덟 살의 시미 산 후안 람바오와 여덟 살의 아드리안 시 베가 프랑코



친구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저는 이 세대에 오기 위해 예비되었던 특별한 영이며 선택된 자인 어린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한 몇 가지 방법으로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의 미소일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여러분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동 선수로서, 철학자로서, 음악가나 예술가로서, 또는 수백만 가지 분야에서 재능을 발견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는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내면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성취로써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성취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라는 말은 반드시 참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영의 아들 딸들이었던 태초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운 원리들에 따르고 선한 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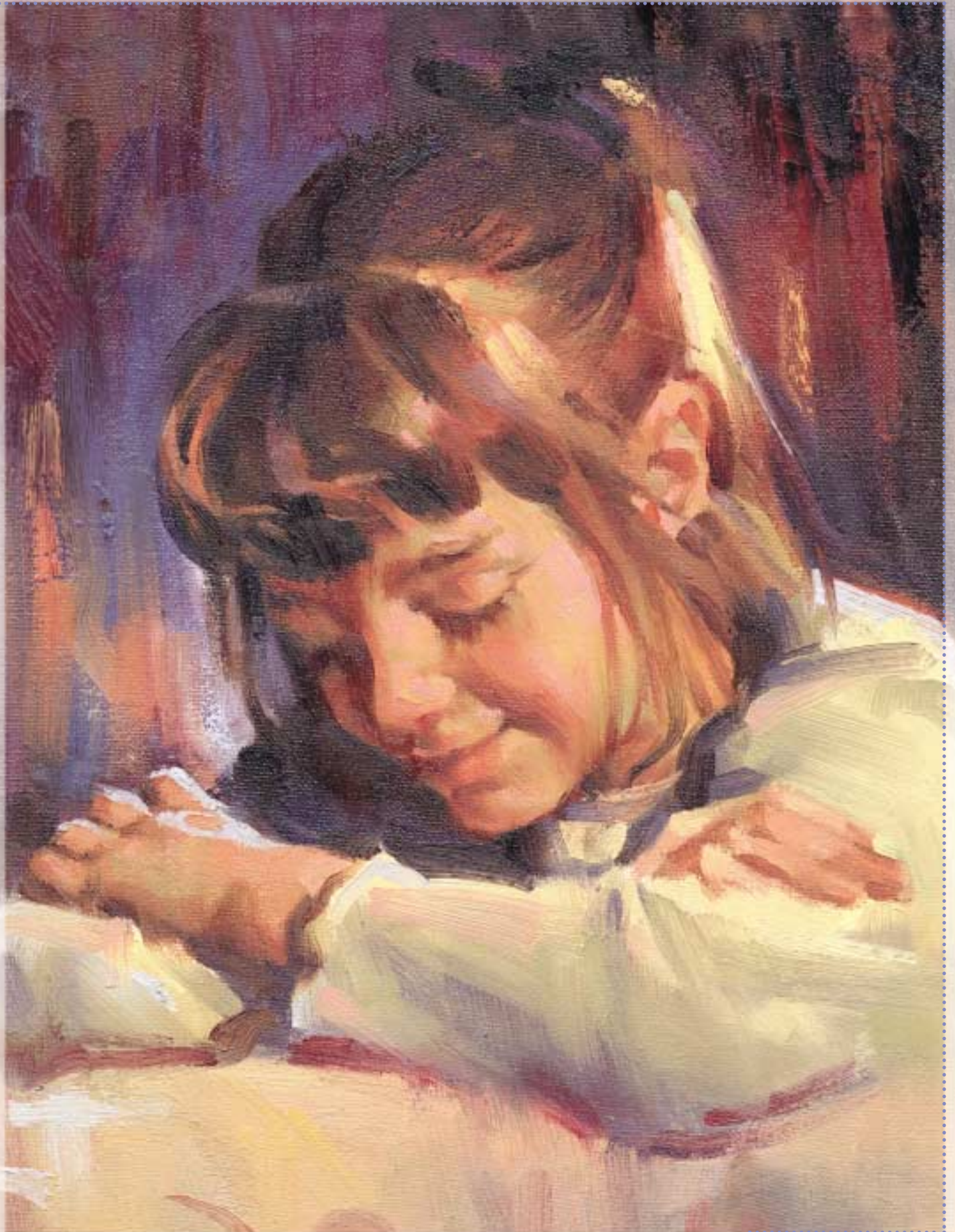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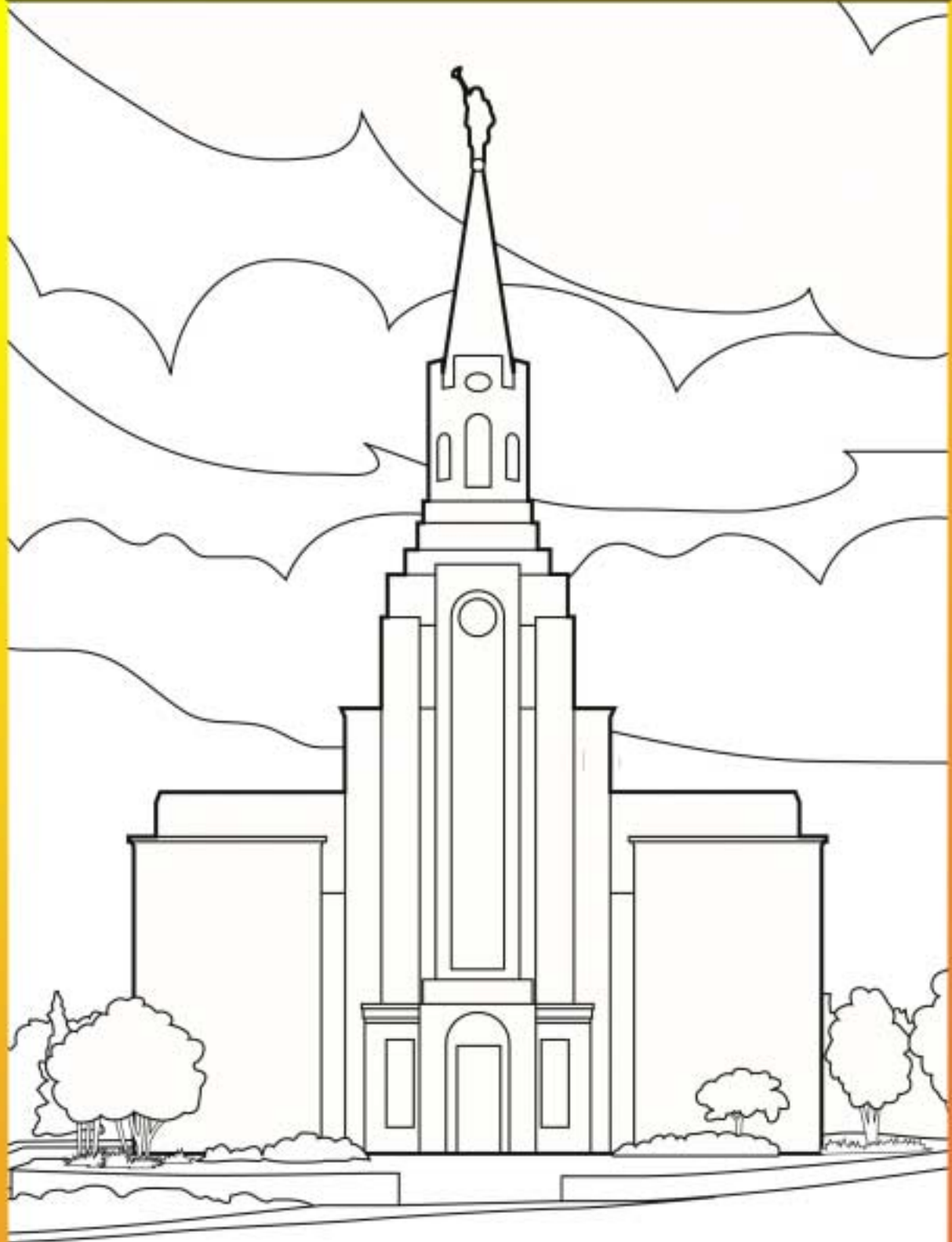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친절할 행동에 해야 합니다. 친절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되게 해 줍니다. 크나큰 만족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인이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으로써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거기에는 친절을 베풀 온갖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학교와 교회에서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은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모사이아서 18:8) 위하여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맺은 성약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님께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줍어하거나 외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친절할 말 한 마디나 미소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진실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2~7쪽: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서 발췌





이름 _____

날짜 _____



특별한 날

실러 이 월슨

“내 이름으로 이 집이 건립되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 곳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나타낼 수 있게 할지어다.”(교리와 성약 124:40)



여러분은 특별한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 날은 여러분의 생일날이나 휴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곱 살의 에데어는 어떤 특별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데어의 가족은 침례일로부터 일 년 뒤에 성전에 가기로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에데어의 가족은 특별한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족 모두가 성전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및 가족 기도를 한다, 경전을 읽는다, 십일조를 바친다, 계명을 지킨다, 예언자를 따른다.

에데어의 어머니는 에데어에게 성전 사진을 주시면서 아래쪽에 에데어의 이름과 가족이 성전에 갈 날짜를 적었습니다. 매일매일 에데어는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받을 때를 가장 잘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에데어는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속으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특별한 날이 다가오에 따라 점점 더 설렘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인봉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성전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가족은 영원해질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우리 각자가 성전에 갈 준비를 하도록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성전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열두 살이 되면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을 하러 갈 수도 있고,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아마도 선교사 부름이나 결혼 전에 성전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축복은 성전에 감으로써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할 때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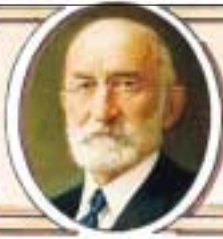
성전 날짜 그림 메모

모자이크 그림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의 4쪽을 떼어서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인다. 작은 종이 조각들을 자르거나 찢어서 색깔별로 분류한다. 그림에 찢거나 잘라 낸 종이 조각들을 풀로 붙인다.(크레용이나 물감을 사용할 수도 있다.) 모자이크 그림의 아래쪽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은 다음 여러분의 방에 걸어 둔다. 여러분은 언제 성전에 갑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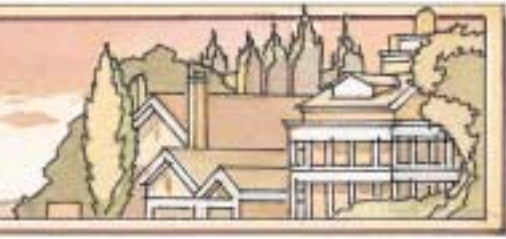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어린이들이 성전 의식에 대해 배우도록 돕기 위해 “성전 그림”을 퍼즐 조각으로 오린다. 각 조각에 다음의 성구나 노래를 써 붙인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교리와 성약 124:29, 31; 127:6~7, “예수 침례 받을 때”(리아호나, 1997년 9월호, 친구들 5쪽), 안수례-교리와 성약 20:41; 138:33, “저는 생일이 좋아요”(리아호나, 2002년 4월호, 친구들 16쪽); 엔다우먼트-교리와 성약 95:8; 105:12; 110:9, “거룩한 성전”(리아호나, 2002년 4월호, 친구들 13쪽); 결혼과 결봉-교리와 성약 132:19, 46, “가족은 영원해”(어린이 노래책, 98쪽) 도우미 한 사람에게 다른 도우미가 퍼즐 조각을 숨기는 동안 잠시 나가 있게 한다. 나가 있던 도우미에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노래를 하는 동안 퍼즐 조각을 찾게 한다. 도우미가 퍼즐 조각에 가까이 다가갈 때 큰소리로, 멀리 떨어질 때는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한다. 퍼즐 조각을 걸어 두고 성구를 찾으며 의식에 관한 적절한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성전 의식에 관한 간증을 한다.

2. 어린이 성찬식 발표를 위한 노래를 복습하기 위해 큰 종이 열쇠를 위에 노래 제목들을 적는다. 어린이 한 명에게 열쇠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교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그 노래 가사 중에서 핵심 낱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노래 부를 때 소리내지 않을 낱말이다. 열쇠의 빈칸에 그 낱말을 적는다. 교실 밖의 어린이를 들어오게 한다. 소리내지 않을 낱말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 어린이의 머리 위로 그 주요 낱말을 들고 있다. 노래를 부르고 그 어린이로 하여금 빠진 낱말을 알아맞히게 한다. 복습하기 위해 다른 노래도 반복한다. ●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에서
노래 배우기



열 살이었을 때,
히버 제이
그랜트는 노래
반에 들어갔다.



히버, 너는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구나, 너는 질대로 노래를 못 배울거야.

그 후 세월이 지난 뒤, 히버는 호레이스 에스 엔사인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제가 찬송가 한두 곡을 부를 수만 있다면 당신께 3개월이 걸려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노래를 배울 수 있어요. 기꺼이 연습해 보겠어요?

두 주일 후에 히버는 "오 높은 영광 보좌"를 배웠고, 두 달 후에는 네 곡의 다른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다.



크로스 장로님, 킴볼 장로님, 우리 앞에는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찬송가 100곡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100곡이라구요? 그렇게 하세요.

히버는 여행 중에도 노래 연습을 즐겼다.





저는 100곡을 부르겠다고
말씀드렸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힘내십시오. 60곡만 더 부르면 됩니다.

찬송가 40곡을 부르자, 두 총관리 역원은 히버가 농담한 것이
아님을 알고 노래를 제발 그만두도록 간청했다.



히버가 교회 대관장이 되었을 때, 부자인 맥쿤 씨 가족이 그가
살도록 자신들의 아름다운 저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히버는
계속해서 자신의 검소한 오두막집에서 살면서 그 저택을 음악
학교로 개조했다.



그랜트 대관장은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버내클 합창단의 라디오 방송
설립을 도왔다. 그는 음악이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동시에 그분을 찬양하는 방법임을 알았다.
*브라이언트 에스 헝클리의 Heber J. Grant: Highights in the Life of a Great
Leader(1951)에서 발췌.*

가족을 축복하는 성전

“내 이름으로 이 집이 건립되게 하라. 그리하여 그 곳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나타낼 수 있게 할지이다.”(교리와 성약 124:40)

침례 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그분과 성약을 맺는다.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킨다면 언젠가 우리는 성전에 가서 더 많은 성약을 맺고 성스러운 의식(영적인 의미를 지닌 특별한 의식)에 참여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성전 의식을 통해 영원한 가족이 이루어진다. 성전 인봉을 통해 전 가족이, 즉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그 밖의 조상들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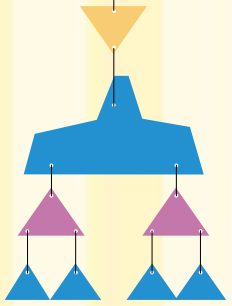
여러분은 의롭게 살고 가족 역사에 대해 배움으로써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 12살이 되면 여러분은 성전에 가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해 그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과 연결되도록 돕는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과 친절로 대함으로써 영원한 가족이 될 준비를 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봉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우리와 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영원한 가족”,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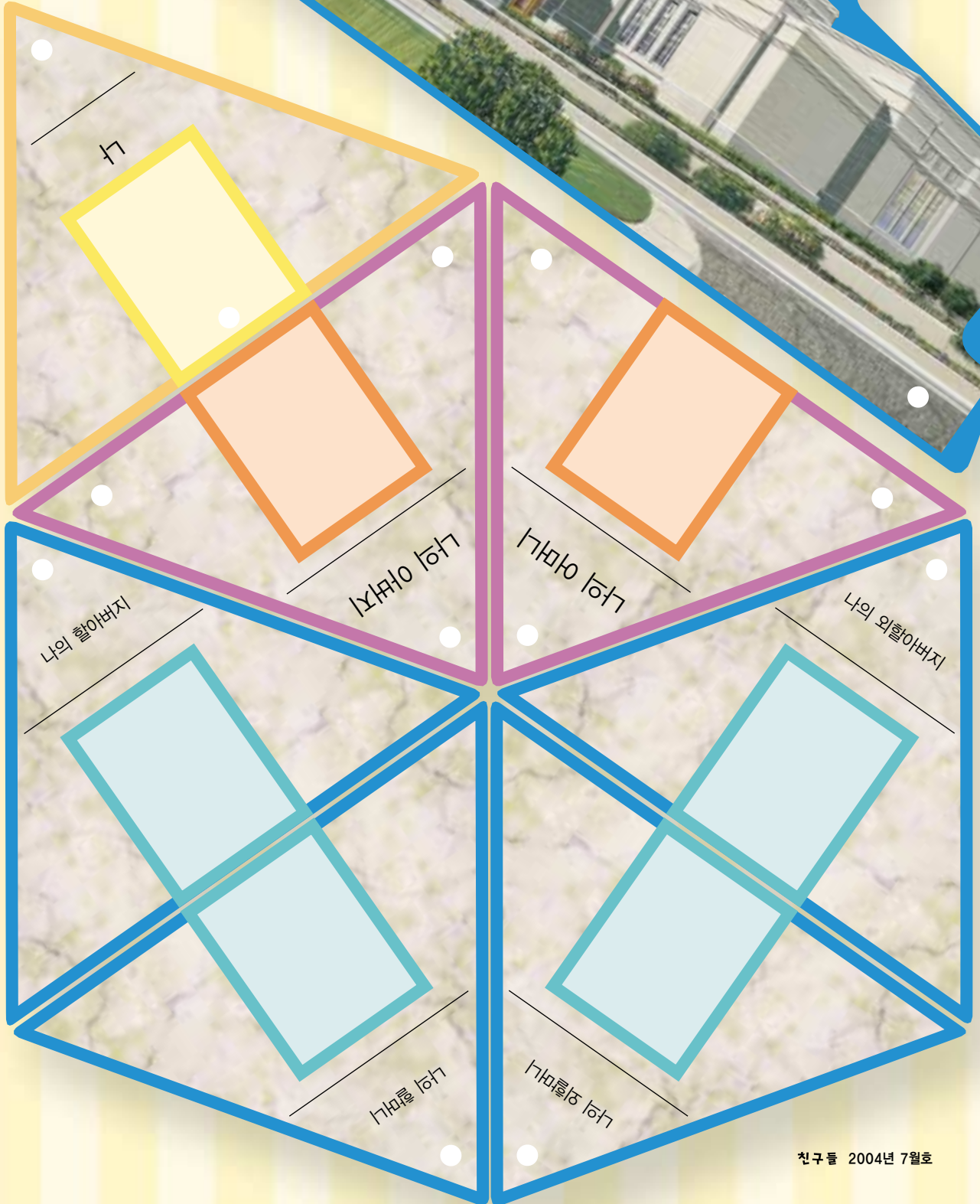
가정의 밤 활동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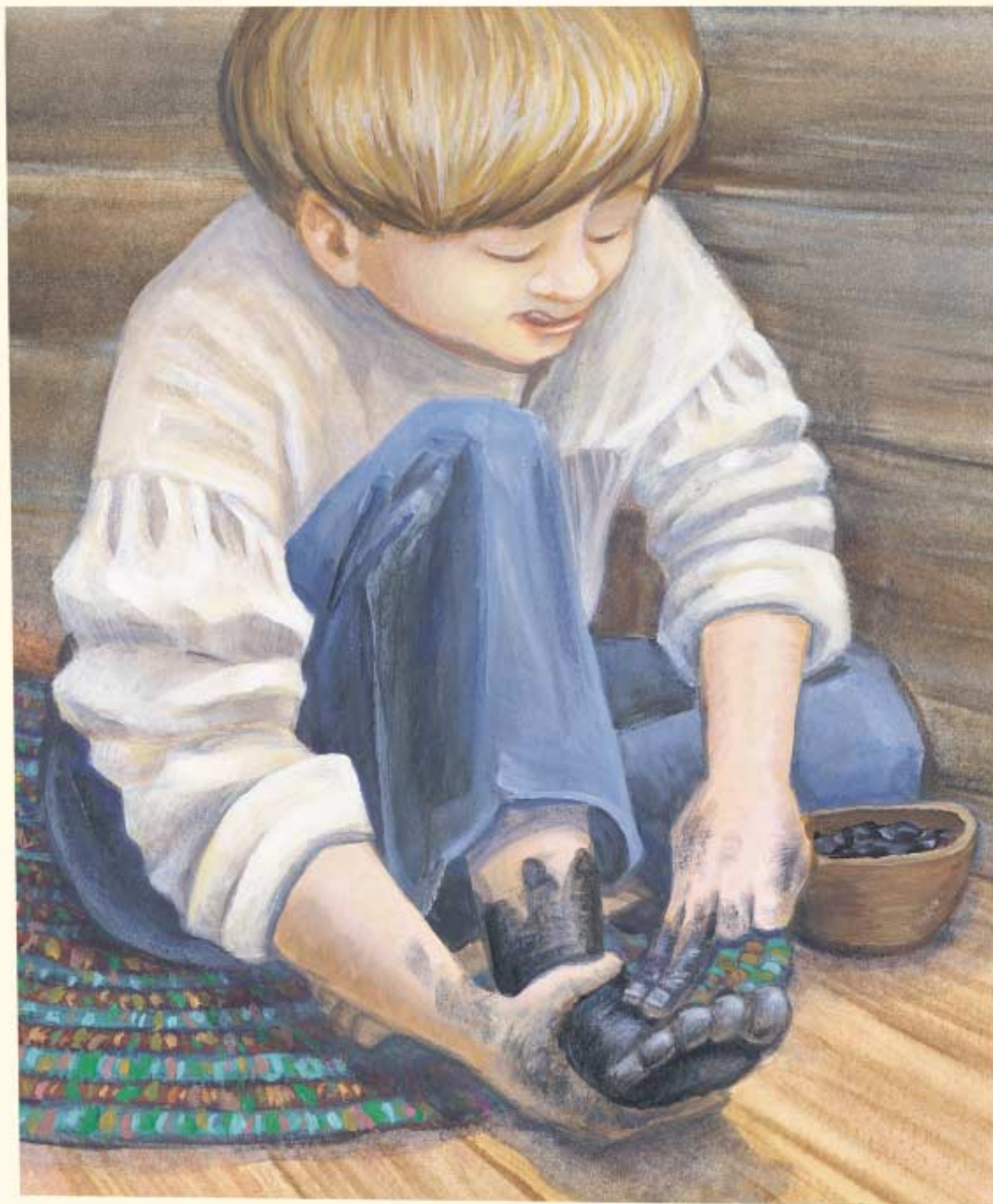
1. 친구들 9쪽을 떼내어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인다. 성전 그림과 7개의 삼각형 틀을 잘라 낸다. 각 원에 구멍을 뚫는다. 각각의 틀에 인물 그림을 그리거나 풀로 붙인 다음, 선 위에 이름을 적는다. 끈을 사용하여 성전 그림 위쪽 구멍과 여러분의 사진 아래쪽 구멍을 연결시킨다.(성전과 틀 사이에 짧은 끈 조각을 남겨 둔다. 그림 참조) 그런 다음, 부모님의 사진을 성전 그림 아래쪽 구멍에 묶는다. 부모님의 사진 아래쪽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묶는다.(어머니의 사진 밑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진을, 아버지의 사진 밑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의 사진을 매는 것에 유의한다.) 성전 사진 뒤에는 언젠가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목표를 적는다. 이 모빌의 맨 위쪽에 끈을 달고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에 걸어 둔다.

2. 가정의 밤 공과나 초등학교 말씀을 위해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말씀에 대해 토론한다. 여러분의 모빌을 전시하고 끈들이 인봉의 권세를 나타냄을 설명한다. 만일 여러분이 성전 그림과 여러분의 사진 사이의 끈을 잘라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끈을 잘라 버린다는 것은, 즉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성전 축복과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으로부터 떼어 내는 것이다. ●



삼화





용기와

친절한 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교리와 성약 25:12)

패트리시아 리스 로퍼
이반 스티븐스의 생애의 한 이야기

이반은 합창 연습을 끝내고 먼지 길을 내려다본 채 발을 끌며 집으로 돌아갔다. 윌러드 마을 합창단 전원이 브리감 영 대관장을 위해 노래 부르도록 초대 받고 환호하고 있었다. 여자 단원들이 신나서 자신들의 책이나 부채로 입을 가리고 속삭이고 있는 사이, 남자 단원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열의를 보였다. 아무도 의자에 풀이 죽어 앉아 있는 열두 살의 이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소년 알토”였던 그는 교회 문을 살며시 빠져 나와 혼자 연습했다.

문제는 이반이 노래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이반은 음악을 아주 좋아했다. 그의 가족이 솔트레이크에서 북쪽으로 80킬로미터쯤 떨어진 마을인 윌러드에 정착했을 때 이반은 훌륭한 마을 합창단에 관해 듣고 몹시 기뻐했다. 스티븐스 가족의 열 번째 자녀인 이반은 농장의 허드렛일을 하는 사이 조금씩 시간을 내어 음악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윌러드 합창단에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음악에 관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일을 할 때도 울동을 하며 움직였고 소를 몰 때도 춤을 추곤 했다. 그는 이제 어디서든 음악을 느꼈다.

예언자를 위해 노래하는 것이 이반을 속상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합창단원은 그 공연을 위해 가장 좋은 주일 복장으로 차려 입어야 할 텐데 이반에게는 좋은 옷이라곤 없었다. 이반의 가족은 돈이 많지 않았다. 그는 결코 좋은 양복이나 일요일에 신는 검정색 구두를 가져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반 스티븐스는 1854년 웨일즈에서 태어났다. 그가 열두 살일 때, 그의 가족은 이반이 합창단원으로 노래했던 유타 주 윌러드로 이사했다. 이반은 브리감 영 대관장이 합창을 들으러 오심을 알았을 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이반 스티븐스는 훗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찬송가 149장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라는 가사가 담긴,
 용기에 관한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다.

예언자 앞에서 노래 부르기가 부끄러웠다.
 이반은 그의 먼지투성이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은 길에서 묻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가기 전에 흙을 털어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발은 검게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르자 이반은 가슴이
 뛰었다. 발을 검게 할 수 있겠다. -구두약을
 바르면 진짜 검은 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노래 부르는 사람의 얼굴을 볼

것이고 아무도 이반이 검정 구두 대신에 검은
 발임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합창단이 예언자 앞에서 노래할 그 날이 왔다.
 이반은 자신의 검은 발을 내려다보며 이마와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꼭
 가야 했고 합창단이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예언자가 자기를 보시지
 못하도록 숨고 싶었다. 이반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합창단이 노래할 농장을 향해
 달려갔다.

농장에서 이반은 걸음을 멈추었다. 혹시
 예언자가 그를 보시지나 않았을까? 그 분은 검게
 칠한 발로 양복도 입지 않은 가난한 농장 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반은 예언자가 자신을 보시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놀란 망아지처럼 도망쳤다. 그는 그가 보이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놀란 소년의 어깨를 붙잡았다. “자, 자, 무슨 일이지? 왜 도망을 가는 거니?” 그 분이 물었다.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인사를 하며 이반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행사에 입을 양복도 구두도 없어요.” 이반은 목에 걸린 무언지 모를 덩어리를 삼키며 계속했다. “제 발을 구두약으로 검게 칠했어요.”

이반의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이 풀렸고 그는 예언자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고 위를 보았을 때 이반은 영 대관장님의 친절하고 그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놀랐다. 그 분은 이반에게 “염려하지 마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곧장 들어가거라.”라고 말씀했다.

이반은 부드럽고 따뜻한 담요처럼 그를 감싸는 위안을 느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떨구어 내고 예언자의 미소를 자신의 미소로 되갚았다. 그는 서둘러 합창단의 자기 자리로 갔다. 예언자께서 그렇게 응대해 주신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이반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영 대관장은 이반에게 그의 역할을 잘하도록 격려의 말과 용기를 주셨다. 이러한 친절은 합창 공연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이반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는 계속해서 음악 공부를 했으며 스스로 익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쳤다.

이반은 성장하여 태버나클 합창단의 지휘자가 되었다. 그는 1889년에서 1916년까지 그 직책에서 봉사했다. 이반은 또한 많은 성스러운 찬송가와 애국적인 노래들을 작곡했다. 그는 늘 겸손했으며, 언제나 예언자에게서 배웠던 교훈을 기억했다. 이반은 음악을 대하듯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영 대관장처럼 그는 마음으로 경청했다. ●

패트리시아 리스 로퍼는 델타 유타 스테이크 리빙턴 와드 회원이다.



음악과 진리의 말씀 제75주년 기념제

칼리 바이스

교회 잡지

이번 달에 태버나클 합창단은 합창단의 유명한 프로그램인 “음악과 진리의 말씀”의 일 년에 걸친 특별 축하 행사를 끝마치게 된다. 세상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보다 장수를 누려 온 이 프로그램은 75년 동안 매주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어 왔다. 여러분의 조부모님과 증조부모님도 여러분 나이였을 때부터 들으셨을 것이다.

1929년 7월 15일에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라디오 방송국은 음악과 진리의 말씀의 그 첫번째 방송을 위해 템플 스퀘어의 태버나클 연단 위에 마이크를 설치했다. 한 젊은이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들을 알리기 위해 마이크 가까이 있는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서 있었다. 그는 소음을 벨까 봐 노래 중간에 내려올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 처음에는 화요일에, 현재는 일요일에, 전세계의 사람들이 30분 동안 계속되는 그 프로그램의 아름다운 음악과 평안을 주는 말씀을 경청해 왔다. 일반적으로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에서 합창단이 공연하고 음악과 진리의 말씀이 녹음되는 한편,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및 남미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녹음해 오고 있다.

오늘날 19개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음악과 진리의 말씀을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 또는 인공 위성을 통해 청취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이 녹음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태버나클 합창단에 대한 그 밖의 흥미있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www.tabernaclechoir.org를 방문한다. 또한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뉴스 “교회, 합창단 방송 제75주년 기념 축하” 리사 앤 잭슨을 참조한다.

메드진 오터스

플로리다 주 미라마



티파니 이 루이스

메드진 오터스는 그녀가 처음으로 “침례” 받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기억하고 있다. 메드진이 세 살이었을 때 오터스 가족의 한 친구가 침례를 받기 위해 침례탕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메드진은 그를 따라가다가 곧장 물 속에 빠졌다. “저는 그 애를 구하려고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지요.”라고 그녀의 아버지가 말한다. 메드진은 다치지 않았다. 오늘날 가족은 메드진이 너무나 적극적이라서 한번은 세 살 때, 또 한번은 여덟 살 때, 두 번씩이나 “침례”를 받았다고 농담한다. 이제 열한 살이 된 메드진은 하이어리어

가든즈 플로리다 스테이크, 아이티어 사용 모닝사이드 지부의 회원이다.

오터스 가족과 메드진에게는 복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복음이 자신을 더욱 순종적이 되게 해주었으며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한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몰몬경 이야기는 니파이가 레이벤에게 낚시판을 얻으러 가는 내용이다. 형들은 무서워서 가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니파이는 용감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라고 메드진은 말한다.

아래쪽: 여동생 앤 및 크리스티와 함께한 메드진(오른 편), 오른쪽: 오터스 가족-오리올, 미래이유, 조셉, 크리스티, 앤, 크리스텔라 및 메드진

메드진은 순종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오터스 형제는 메드진이 웃기를 좋아하지만 특히 그녀가 두 여동생, 즉 여섯 살의 크리스티와 다섯 살의 앤을 “교육”시킬 때는 매우 엄격하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그녀는 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고 노래와 무용도 가르쳤다.

메드진은 그녀의 아버지 오리올과, 어머니 미래이유 및 그녀의 네 형제 자매들과 친하게 지낸다. 그녀의 여동생 크리스티는 읽기를 좋아한다. 그녀는 불어와 아이티어를 말하고 영어를 빠르게 배우고 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항상 질문을 한다고 말한다. 그녀의 막내 여동생 앤은 일단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녀는 마음을 바꾸는 법이 없다. 앤도 창의적이어서 배우 흉내 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평범한 일도 재미있게 보이게 한다고







위쪽: 메드진과 그녀의 가족이 나가는 교회 집회소. 오른쪽: 메드진, 크리스티 및 크리스텔라가 우아하게 춤추고 있다.

말한다. 크리스티와 앤은 둘다 아버지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메드진의 오빠 조셉은 열일곱 살로 농구를 좋아한다. 그녀의 언니인 크리스텔라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노래 경연 대회에서 일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메드진네 가족은 집 가까이에 있는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을 즐긴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열어 주님을 따르고 선교사로 나가고 교육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한다. 그들의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는 “크릭 크랙”이라는 게임이다. 이것은 가족이 원형으로 앉아서 교회 역사 및 경전에 있는 날짜, 성명 및 사건들에 대해 서로 퀴즈를 내는 것이다.

메드진은 스포츠, 특히 농구를 좋아한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에 지부 회원들과 농구를 한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노래와 춤이다. 그녀는 자신의 춤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피아노를 가르친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 “사랑의 하나님”을 불어로 작사하기도 했다.

노래 부르기는 오터스 가족 전원이 좋아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스테레오를 틀어 음악이 방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가족들의 발은 스텝을 밟기 시작한다. 곧 그들은 일어나 일제히 팔을 우아하게 움직이며 춤을 춘다. 메드진은 미소를 지으며 눈이 환해진다. 그녀는 노래를 하면서 그 노래를 통해 간증을 전한다. ●

티파니 이 루이스는 하이어리어 가든즈 플로리다 스테이크 마이애미 쇼즈 워드의 회원이다.

